

머리말

『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통장』은 순수한 수공예품인 화살통 제작을 가업으로, 천직으로 삼고 살아온 전통장 기능 보유자 김동학의 화살통 제작 방법과 과정, 그의 한평생, 화살통의 역사 등을 설명하고 기록하였다.

이 책은 전통장에 대한 기록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화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한 영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 그리하여 영화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면서 사진을 중심으로 도면·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활쏘기를 좋아했고, 그 기량이 뛰어났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가리켜 동쪽의 큰 활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동이(東夷)민족이라고 불렀다. 활쏘기에는 활, 화살, 전통[화살통]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이중 화살통은 단순한 도구라기 보다는 공예품이다.

해방 후 한국의 공예품은 현대과학의 발달로 공업화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예로부터 전해 오는 한국 특유의 전승 공예가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김동학은 투철한 한국적 창작 정신과 오랜 기간 쌓아올린 숙련공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을 제작하고 있다. 김동학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유려하여, 어쩔 수 없는 피내림이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예능민족연구실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과거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유산을 통해 각박한 형식논리와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진정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와 세계화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문화의 향기를 드높일 수 있는 기초작업이다.

이 작업의 성과물인 기록영화와 책자가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전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국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과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도모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7년 5월

예능민속연구실장 朴相國

I. 전통의 역사

전통(箭筒)이란 화살을 담아서 편리하게 들고 다니는 통으로 전쟁이나 수렵을 할 때 사용되었다. 전통은 습사용(習射用) 연습용(練習用)이 있는데, 통상 전통이라 함은 습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화살촉이 구석기시대 말엽에 차츰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석기 시대에 와서 일반적으로 무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¹⁾전통의 기원은 인류 문화와 함께 유구한 역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활을 쏘는데는 활과 화살, 그리고 화살을 담을 수 있는 통, 이 세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화살통은 활과 화살처럼 쏘고 날아가는 주체는 아니지만 많은 화살을 운반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기마 민족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고대 옥편인 《설문해자(說文解字)》 “이(夷)”자 조(條)에 의하면, 이(夷)는 대인(大人)이 활을 쏘는 형태로²⁾동이민족(東夷民族)이라는 이름이 그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하였다. 한민족이 일찍부터 활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민족의 활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지》 동이전으로 기록에 의하면 단궁(檀弓)이 동예(東濊)에서 산출된다고 하였는데, 단궁은《오주연문장전산고》 및 《사군지》에 의하면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라고 하였다. 또 《후한서》동이열전에는 ‘한(韓)에는 세 종류가 있다.… 활을 고(弧)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고는 《역경》 번사하전(繁辭下傳)에 의하면 ‘현목위호(弦木威弧)’라 하여 나무로 제작된 활임을 알 수 있다.³⁾또한 《후한서》동이열전에는 ‘구려 일명 맥이라 부른다.



사진 1. 활쏘는 사정(射亭)인 황학정

조선 시대에 와서 활쏘기를 남자가 갖추어야 할 육예(六藝)로 여겨 왕을 비롯하여 문무(文武)를 가리지 않고 활쏘기를 즐겼다.

1) 김기웅, 「原始社會의 武器」 『武器와 火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30쪽

2) 許慎, 《說文 清段玉裁注》, 臺灣 黎明出版社, 1986, 498쪽.

3) 《古今圖書集成》 第七六二冊 戎政典 弓矢部, 文星書店印行(影印本)



사진2. 궁사

사진2. 궁사

별종이 있는데, 소수(小水)에 의지하여 사는 까닭에 이를 소수맥(小水貊)이라고 부른다. 좋은 활이 생산되니 이른바 맥궁이 이것이다.’라 하였고, 우부강표전(虞溥江表傳)에는 산상왕(山上王) 26년(222)에 각궁(角弓)을 오나라 손권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좋은 궁을 제작하고 사용하던 한민족은 호시(檣矢)·죽전(竹箭)이라는 화살과 함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화살통 역시 다양한 종류로 제작하였을 것이다.

고려는 내궁전고(內弓箭庫)라는 활과 화살을 제조하는 방(房)을 설치하고 궁시를 제작하였는데, 궁대장(弓袋匠)이라는 장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궁대란 활을 넣고 다니는 활집을 지칭하지만, 활은 화살과 같이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시의 궁대장은 화살집도 같이 제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고려는 내궁전고의 장인 이외에도 활과 화살통을 제작하는 장인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당시의 군사들 중에 상당수가 도건((弰韃)·동심결도건(同心結弰韃)이라는 활과 화살통을 패용하고 있었다.⁴⁾내궁전고는 국

4) 《高麗史》 卷 72 志制 26 儀衛條



사진 3 관덕

왕 전용의 궁시방으로 이곳에서는 활과 화살통을 전문적으로 만들었는데 왕의 활과 화살 뿐만 아니라 군사용 활과 화살 그리고 화살통도 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시대 활과 화살 그리고 화살통 제작은 군기시(軍器寺)·상의원(尙衣院) 등의 경공장(京工匠)과 지방의 각 외공장(外工匠)에서 만들었다. 공조(工曹)에서도 활과 활집인 궁대(弓袋)와 화살집인 시복(矢箠) 등을 제작하였는데, 특별히 화살통을 제작하는 통개장(筒介匠)이라는 장인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저피(猪皮)·생피(生皮) 등의 피혁 제품으로 전쟁과 수렵에 사용되던 화살통을 만들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수의 장인들이 전국에서 화살통을 만들어 왕에게 진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활과 화살, 그리고 화살을 담을 수 있는 통
이 세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화살통은 활과 화살처럼 쓰고 날아가는 주체는 아니지만 많은 화살을 운반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사진 5 . 전통장 기능 보유자 김동학과 그가 만든 화살통(箭筒)

전통은 대·나무·가죽·종이 등을 재료로 하여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와서 활쏘기를 남자가 갖추어야 할 육예(六藝)로 여겨 왕을 비롯하여 문무(文武)를 가리지 않고 활쏘기를 즐겼던 당시 풍속 때문에, 전통은 한량들이 갖추어야 할 사구(射具)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장신구나 돈있는 사람들의 사치품으로 변하였다.

즉 활이 전쟁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던 때나 심신을 단련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던 때나 전통은 활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다.

I 고대-통일 신라

한국의 전통 역사는 활·화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활쏘기는 활과 화살 그리고 화살을 담을 수 있는 통을 갖추어야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과 전통은 재료가 나무나 뼈·가죽·종이 등으로 만들어져 오랜 기간 보존이 불가능하며, 오직 화살촉의 재료만이 돌로 제작되어 그 당시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화살통의 역사는 활·화살 등에 의하여 고증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궁시 제작은 그 역사가 매우 깊어서 중석기 시대인 B.C 12,000~10,000년 전에 이미 활쏘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흥천 하화계리에서 발굴된 타제 찌르개 중 화살촉으로 추정되는 유물에서도 알 수 있다.⁵⁾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전통의 역

5) 최복규·김용백·김남돈, 「흥천 하화계리 중석기 유적 발굴 조사 보고」 『중앙고속도로 건설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1992

사는 활과 화살이 출현한 때와 그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후 신석기시대에 와서는 화살촉이 전국적으로 발굴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청동기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여서 늦쇠 화살촉은 사리원 상매리와 영흥 소라리 부조예군묘 등 북방에서 주로 출토되고,⁶⁾ 남방에서는 전남 보성군 문덕면 덕리 고인돌에서 석촉과 함께 발굴된 유물과, 경남 창원 삼동동 2호 석관묘에서 발굴된 것 등이 있다.⁷⁾ 특히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파주 옥석리에서는 전문적인 장인이 화살촉을 제작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우리 나라 궁시 제작은 일찍부터 전문 장인이 화살촉을 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 고대사회에서부터 궁시 제작은 분업화되어 전문 장인이 존재할 정도로 발달하여 화살을 담던 전통 역시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은 일명 전실(箭室)·시통(矢筒)·전통(箭筒)이라고 부르며, 연습과 오락용이 있다. 통상 전통으로 불리는 화살통은 긴 통의 모양이며 뚜껑이 있어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같은 전통의 구조는 패용할 때에 불편하고 사용하는데 거추장스러워서 수렵과 전쟁때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과 수렵에 사용되는 화살통은 화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



사진6-①. 묘광

사진 6. <다호리 32호분>

사진6-①. 묘광

사진6-②. 칠기 화살통과 철촉 출토 상태

6) 김기웅, 「고조선 및 삼한 시대의 무기」 『武器와 火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41쪽.

7) 陸軍博物館, 「화살과 화살촉」 『韓國의 활과 화살』, 1994

8) 金栽元·尹武炳, 「韓國支石墓의 研究」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6집, 1967. 19쪽. 崔盛洛, 「韓國 마제석촉의 考察」 『한국고고학보』 12집, 1982. 290쪽.

사진6-③. 칠기 화살통 복원 상태

어 있는 모양으로 시복(矢箠)·고복(囊箠)이라고 부른다. 쌍영총·무용총 등의 고구려 벽화에서 이와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질이 쉽게 부패하는 관계로 대부분 썩어 없어졌다.

그러나 경남 의창군 동면 다호리 32호분 묘광과 목판 사이에서 출토된 흑칠목심칠기(黑漆木心漆器) 중에 전통이 발굴되었는데, 목심은 이미 부식되어 없어졌고 칠피만 남아 있는 상태로 추정 직경10.0cm·추정 길이 83.4cm 정도의 칠기 뚜껑이 덮인 상태였다.



사진7. <다호리 48호분>

사진7-①. 묘광

사진7-② 철축 출토 상태.

칠기의 표면에는 2mm 정도의 돌대가 3줄 1조·2줄 1조로 둘러져 있다. 뚜껑에는 1줄의 돌대가 둘러져 있었다. 내부에는 무경역자식의 철축 7점이 들어 있는 채로 출토되었다.⁹⁾다호리 48호분 북쪽 장벽에 길이 60cm, 폭 10cm 가량의 장방형 목질흔과 철축 6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화살통에 화살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부장(副葬)된 듯하나 화살통의 형체는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¹⁰⁾또 같은 다호리 50호분의 남벽에서는 묘광 벽에 붙어 있는 길이 90cm, 폭 20cm 크기의 칠기 화살통과 철축 10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화살통은 칠피 흔적만이 남아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가 없다.¹¹⁾

9) 이진무·윤광진·신대곤·정성희,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진전보고(3)」 『고고학지』 5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3

10) 이진무·송의정·정성희·한봉규,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진전보고(4)」 『고고학지』 7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3, 15쪽.

11) 이진무·송의정·정성희·한봉규,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진전보고(4)」 『고고학지』 7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3, 21쪽.



사진8. <다호리 50호분>

사진 8-①. 묘광

사진 8-②. 철촉출토 상태

화살의 상단 부분을 개방하고 사용하는 전투·수렵용 화살통은 최근 들어 가야 문화권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있다. 1978년에는 고령 지산동 연결 석곽에서 철제 팔목시계 모양의 꾸미개 한 쌍과 밑 테두리 한 점이 발굴되었고, 34SE-3호 석곽에서 금동제 산 모양 꾸미개 한 점과 팔목시계 모양 꾸미개 한 쌍이 출토되었다. 1980년부터 1981년에 걸쳐 조사된 부산 복천동 고분군 11호 석곽묘에서는 철제 산 모양 꾸미개 한 점과 부속 꾸미개, 그리고 22호 석곽묘에서 금동제 화살통 꾸미개 일체가 출토되었다.



사진 9. 성시구 부산 복천동 21. 22호분 주곽.



사진 10. 성시구 · 철축 · 오늬 경산 조영동 CII-2호, EIII-2호분

그 뒤 1982년 경산 임당동 7B호 고분에서 금동제 산 모양 꾸미개 한 점이 출토되었으며, 1985년과 1986년에 걸쳐 조사된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는 금동제로 제작된 것이

사진 12. 성시구 고령 지산동 석관 34, 35호분, 4세기



사진 13. 성시구 함천 옥전 28호분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계동 19호 토광묘의 유물에서는 오른쪽 팔목시계 모양 꾸미개의 밑둥 부분에서 꺾쇠 모양 고리 2개가 겹쳐져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꺾쇠 모양 고리에는 가죽 흔적이 고리 막음판에서 위로 약 2cm 정도 남아 있어 오른쪽 팔목시계 모양 꾸미개와 ㄷ자 모양 꾸미개 사이에서 화살통 몸체 가죽에 고리같이 끼워져, 요즈음 군용 방독면을 착용할 때 허리에 돌아가는 띠의 끝 연결쇠를 걸 수 있게 만든 고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이 꺾쇠 모양 고리는 허리에 돌려지는 가죽띠를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생각할 수 있어 복천동 22호 고분 출토 화살통의 복원도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 이것을 단정하기에는 고리의 형태나 착장되는 방향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자료가 나타난 후에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겠다.



사진 14. 성시구 함천 옥전 M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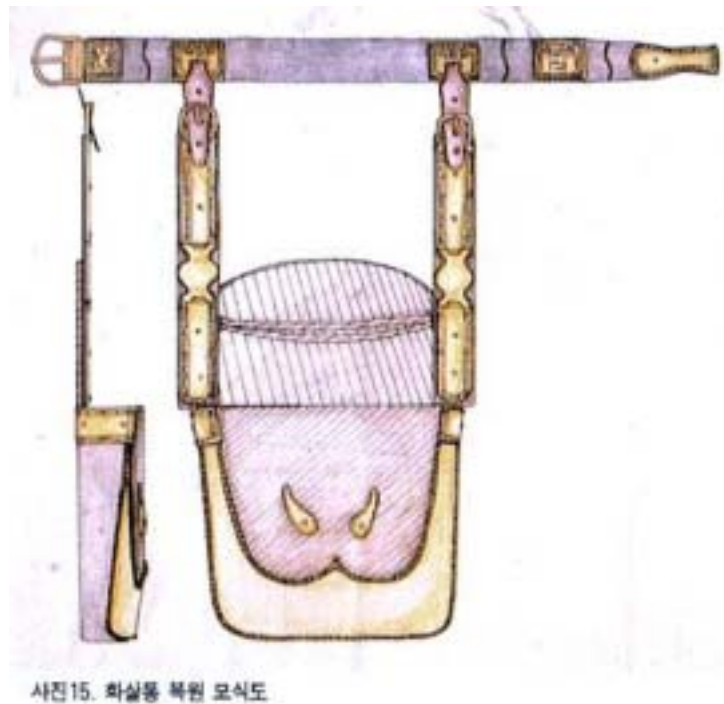


사진 15. 화살통 복원 모식도

화살통은 그 윗부분이 20호 토광묘에 의해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꾸미개는 제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화살통 속에는 여러 형식의 화살촉 24개가 3층으로 쌓여서 내부에 담겨져 있었는데, 제일 윗단에 11개 · 중간단에 8개 · 아랫단에 5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화살통 내부에 있는 화살촉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철기 조각들이 나왔다. 이 화살촉을 감싸고 있는 산 모양 꾸미개는 부분적으로 부서지긴 하였으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 산 모양 꾸미개의 오른쪽에는 꺾쇠 모양 고리 2개가 겹쳐서 산 모양 꾸미개와 팔목시계 모양 꾸미개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화살통 중간 부

분 양측에 팔목시계 모양 꾸미개를 중간 부분 양옆에서 口자 모양 꾸미개가 각가 1개씩 부러진 채로 출토되었다.¹²⁾이상 설명한 것이 우리 나라 가야 문화권 내의 화살통의 모양인데, 신라는 물론 고구려나 백제의 화살 통 또한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나 발굴되는 유물이 없어 벽화나 활쏘기 기록 등을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 밖에 없다.



사진 16. 화살통 지산동 39호.

사진 16. 화살통 지산동 39호

고구려는 시조 동명왕(東明王)이 나이 일곱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을 쏘아 한 번도 빗나가는 적이 없어 이름이 주몽(朱蒙)이라고 하였다. 주몽은 부여 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 한다. 또한 《구당서》동이열전에 보면 ‘큰 집을 짓고 이 집을 일러 편당(扁黨)이라 하였다. 자체가 결혼하기 전에 밤에는 글을 읽고 낮에는 활을 쏜다’라고 하였고, 《양서》동이전에는 ‘국민이 기력을 숭상하고 궁시와 칼·창·갑옷을 입고 전투를 연습한다’라 하여 청소년들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권장하고 기력을 숭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는 많은 벽화를 남겨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12) 창원대 박물관, 「창원도계동고분군」 『창원대학박물관학술조사보고』 제1책, 1987. 194쪽. 경북대 박물관, 「협계 옥천고분군1」 『경북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서』 제3집, 1988.
 김중철, 『고령지산동고분군』,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150쪽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번계제고분군」 『합천댐 수몰지구 발굴조사보고』 1집, 1987. 49쪽.



사진 17. 무용총 수렵도의 화살집

화살통에 대한 자료로는 중국 집안(集安)의 무용총 주실 서벽의 벽화[5세기]와 평남 용강의 쌍영총 갱도 서벽 벽화[5세기]·황해도 안악 3호 고분 주실회랑 벽화[357년]·중국 집안 장천 1호 고분 전실의 북벽 벽화[5세기]·평안도 약수리 수렵도 [4세기말~5세기초]등을 들 수 있다.¹³⁾ 이들 중에서 무용총·약수리 벽화 고분·안악 3호분 등의 벽화에서는 가로 세로의 크기가 비슷하고 길이가 짧은 형태의 화살통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안악 3호 고분의 행렬도와 무용총의 수렵도에는 화살통이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두 벽화 모두 하부의 꾸미개는 「山」자 모양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안악 3호 고분의 경우에는 상부를 「二」자 모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발굴되고



사진 18. 쌍영총 기마상의 화살통

사진 18. 쌍영총 기마상의 화살통

13) 李鐘碩 編輯『風俗書』, 中央日報社, 1987.
최무장·김연철 편저, 『高句麗古墳壁書』, 신서원, 1992.
金性泰, 「高句麗의 武器(1)-刀劍과 弓矢-」 『文化財』 文化財管理局, 1993.

있는 가야 문화권 지역의 성지구(盛矢具: 화살통)와도 매우 비슷한 모양이다.

약수리 벽화 고분과 장천 1호 고분의 벽화 역시 짧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약수리의 것은 전체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들고 장천 1호분 것 역시 화살통을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윗단과 후단을 굽은선으로 표시하여 세부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반면 활통의 경우에는 장천 1호분과 쌍영총의 고분에서 비교적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화살통의 것보다 훨씬 가늘고 긴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만 장천 1호분의 것은 활통의 끝단을 둥글고 뾰족하게 처리하였고, 쌍영총은 활통의 윗단과 아랫단의 굽기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끝단을 직각으로 처리하면서 선을 둘러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들 활통과 화살통의 공통적인 특징은 활과 화살을 개방하면서 화살을 담은 것으로 활은 1/2정도 화살은 2/3이상을 노출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 때에 빨리 활·화살을 꺼내어 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사진19. 안악 3호분 행렬도 궁수의 화살통

백제는 《주서》에 ‘병사들이 활과 화살·칼을 가지고 있고 풍속에 말 타고 활쏘는 것을 중시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역시 말을 타고 활쏘는 것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수서》 동이열전에 ‘8월 15일에 이르러 오락으로 활터를 설치하고 벼슬아치나 일반인이 활을 쏘아 상으로 말과 포를 주었다’라고 하여 활쏘기 대회를 열어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신라는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봄에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고... 성적이 뛰어난 자를 뽑아 종이와 궁전(弓箭)을 주라고 이때에 고쳤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활쏘기로 인재를 등용하다가 788년에 비로소 독서삼품을 설치하고 이것으로 관리를 선발하였고 군제에 이궁(二弓)이라는 활쏘기 전문 부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쏘기 장려책은 여러 종류의 호궁(好弓)과 호시(好矢)를 제작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진20. 약수리 수렵도

이 무렵 당나라의 태종은 신라의 궁사(弩師) 구진천(仇珍川)을 데려다가 쇠뇌의 비법을 당나라 군사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써 그 비법을 전해 주지 않았다. 당시 신라의 제궁법(製弩法)이 세계 최고라는 중국의 노(弩)에 결코 뒤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활쏘기에 필요했던 화살통 역시 제작과 개발이 반복되었을 것이며 이같은 상황은 신라만이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2. 고려시대

고려의 화살통 역시 문헌이나 유물이 매우 부족하여 궁시류를 통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고려 역시 활쏘기를 국가 행사로 중요시하여 현종 9년(1018) 9월 무진일에 해군 및 노군(弩軍)에게 차와 포를 상으로 주는 등¹⁴⁾ 고려의 전 기간에 걸쳐 왕들이 직접 활쏘기를 사열하고 군의 사기를 돋았다. 각 지방 관아와 주진(州鎭)에서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매월 6일이면 관민을 동원해 활쏘는 연습을 하고 관리가 활을 잘 쏘면 직급을 높여 주고 승진을 시켰으며, 일반인이 잘 쏘면 관직을 주어 격려하였다. ¹⁵⁾또한 현종 20년(1029) 윤 2월에는 문관 4품 이상으로 나이 60이 되지 않은 사람은 휴일마다 동서의 교외에서 활쏘는 연습을 하게 하였으며¹⁶⁾, 문종 23년(1069) 3월에는 별장(別將)·대정(隊正) 등의 관민원은 궁과(弓科) 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선발하였다.¹⁷⁾ 특히 선종 3년(1086)에는 양경(兩京: 개성(開城)과 평양(平壤))의 문무관을 불러 동정(東亭)에서 활쏘는 것을 수개월간 사열하기도 하였고, 8년(1091)에는 호부(戶部)의 남쪽 행랑 빈터에 활쏘는 장소를 만들어 각 령의 군사들과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들

14) 손영중·황철산 譯. 《北譯 高麗史》 卷第八一 兵一條. 신서원. 1992. 451쪽.

高麗時代に 대한 서술 중 대부분은 이 책을 根據로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高麗史》로 略稱하겠다.

15) 《高麗史》 卷第八二 兵二條 鎭戍條. 485쪽.

16) 《高麗史》 卷第八一 兵一條. 451쪽.

17) 《高麗史》 卷第八一 兵一條. 456쪽.

을 모아 연습하게 하고 과녁을 맞힌 자에게는 은 주발과 대접 한 벌을 상으로 주기도 하였다.¹⁸⁾

숙종은 고려의 북방을 괴롭히던 여진을 정벌하기 위하여 재위기간에 빈번하게 활쏘기 사열을 하며 군비를 다지는 동시에, 9년(1104)에는 윤관(尹瓘)의 건의로 별무반(別武班)과 항마군(降魔軍)을 조직하여 여진 토벌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예종은 선왕의 유지를 이어 받아 2년(1107)에 여진을 정벌하고 9성(城)을 쌓았으며, 4년(1109) 7월 국학 칠재(七齋) 중에 강예재를 두어 한자순(韓自純) 등 8명을 시험으로 뽑아 나누어 배치하였는데¹⁹⁾ 이것이 훗날 무과(武科)의 시초가 되었다. 이외에도 고려에서는 국가 시책으로 궁술에 관한 많은 시책이 있었다.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고려에서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궁술을 장려하였으므로 활과 화살의 발전과 아울러 화살통의 발전을 짐작할 수 있으나 화살통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극소수만 전하는데 그것은 <표1>과 같다.

<표1> 고려의 활과 화살통

18) 앞의 각주와 동일.

19) 《高麗史》 卷第七四 學校條. 120쪽.

명칭	용도	문헌	사용연대	비고
箭靱裁	화살 보자기	고려사	942년	혜종 2년(942) 진나라로 보내는 국신물, 천에 금은실 등으로 수를 놓아 장식한 보자기 형태
弓袋裁	활보자기	고려사	942년	상동
弓袋	활통(활 · 화살통)	고려사	1076년	內弓箭庫의 장인 중 궁대장이 존재
弰韃	활 · 화살통	고려사	의종재위연간(1147~1170)	法駕이 衛仗에서 先排隊의 군사 80명이 도건을 착용하고 鐵甲을 입고 말을 탐. 龍虎衛身隊 군사 600명이 도건을 휴대하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탐. 연등 때의 위장에서 위신마대의 군사 400명이 도건을 휴대하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탐. 西南京幸 回駕奉迎衛仗때 玄武軍隊의 군사 400명이 도건을 휴대하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탐.
同心結 弰韃	활 · 화살통	고려사	상동	법가의 위장에서 선배대의 군사 200명이 동심결도건을 휴대하고 말을 탐. 연등 때의 위장에서 선배대의 군사 100명이 동심결도건을 휴대하고 말을 탐. 西南京巡幸衛仗 때에 위신마대의 군사 30명이 동심결도건을 휴대하고 말을 탐. 서남경행회가봉영위장 때에 선배대의 군사

<표1>의 내용과 같이 고려의 활과 화살통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어서 혜종 2년(942)에 진(晉)나라에 보내는 국신물(國信物) 목록 등에서만 약간 살필 수 있다. 이때 보낸 물목(物目)에는 각궁(角弓) 4장, 붉은 바탕에 금·은·오색실로 용과 물고기를 수놓은 모직 활전대 4개[궁대재(弓袋裁)], 죽간전(竹簾箭), 목간전(木簾箭)과 아울러 붉은 바탕에 금·은·오색실로 구름과 용을 수놓은 화살통[전채재(箭靱裁)] 등이 있었다.²⁰⁾ 이것은 전쟁이나 수렵 또는 연습 등에 사용되는 화살통이 아니라 화살을 넣어 보내는 주머니와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 즉 전채재(箭靱裁)와 궁대재(弓袋裁)는 피혁이나 목재 등의 단단한 재질로 제작되는 활과 화살통이 아니고 보자기에 금은실로 수놓은 화려한 보자기다. 현재의 궁대라는 것과 흡사한 것으로 구부린 활을 넣는 주머니와 같은 형식이거나 길다란 형태의 천으로 만들어진 자루와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고려의 내궁전고에는 임금이 사용하는 궁전을 제조하던 장인이 있었는데, 각 궁장(角弓匠)·전장(箭匠)·전두장(箭頭匠)·궁대장(弓袋匠) 등이 활쏘기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었던 장인들이다.²¹⁾ 각궁장은 활을 만드는 장인이고, 전장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며, 전두장은 화살촉을 만드는 장인, 그리고 궁대장은 활집을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된

20) 《高麗史》 卷第二 惠宗 世家條. 123쪽.

21) 《高麗史》 卷第八十 諸衙門工匠別賜條. 409쪽.

다. 당시는 화살통을 전문으로 만들던 사람이 내궁전고 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활과 화살을 패용하려면 활집과 함께 당연히 화살집도 있어야 하므로 궁대를 만들던 사람이 화살집도 동시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같은 궁대장은 왕실전용의 궁전을 전문으로 만들던 곳으로 이곳 외에도 많은 궁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고려 시대 의위(儀衛)²²⁾에는 의장에 도건·동심결도건이라는 활과 화살통하고 사용하던 것으로 보아²³⁾ 당시에 일반 군사들이 패용하는 활과 화살통이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1. 공민왕의 엽기도(獵騎圖)에 그려진 화살통

사진 21. 공민왕의 엽기도(獵騎圖)에 그려진 화살통

즉 이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활과 화살통을 제작하는 장인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이나 끈으로 튼튼하게 두 번 매듭지은 동심도건과 도건이라는 화살통은 모두 마병(馬兵) 전용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의위의 모든 위장(衛仗)중에 ‘장엄궁(莊嚴弓)’·‘탄궁(彈弓)’ 등의 활을 휴대한 장교(將校)·반사(班士)·군사(軍士)는 모두가 말을 타고 있지 않으며 물론 도건도 없었다. 특히 팔관회 때 위신대(衛身隊)의 군사 40명은 도건을 휴대하지 않고 활과 화살을 맨다 하여 연등회 때의 위신마대(衛身馬隊)의 군사 40명이 도건을 가지고 말을 타고 있는 것과 비교를 이룬다. 이같은 것은 “마대(馬隊)”라는 글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때의 화살통은 전투·수렵에 사용되는 윗부분이 개방된 피혁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22) 의식을 장엄히 하기 위하여 정렬시키는 의장 기구를 가진 호위원들을 말한다.

23) 《高麗史》 卷第七二 儀衛條. 24쪽.



사진22 최영장군의
신궁과 신전통
일본 정창원
소장

현존하는 유물로는 고려 후기 최영 장군의 유물로 알려진 신궁(神弓)이라는 활이 각궁과 함께 일본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길이 99.3cm의 긴 연습용 전통인 신전통(神箭筒)과 소장처를 알 수 없는 고려말 또는 조선조 초기의 것으로 생각되는 태조 이성계의 화살통[御矢箠]이 어궁대(御宮袋)와 함께 전한다.²⁴⁾ 사진으로 보는 태조의 시복은 형태가 독특하여 《오례의군기도설(五禮儀軍器圖說)》에 전하는 조선조 초기의 시복과는 다르고 요즘 발굴되는 가야의 화살통과 비슷하다. 이것은 현재 박물관 등에 소장된 시복의 유물보다 크기가 크고 가늘고 길며 앞면 아랫단은 둥글게 말아서 마무리 하면서 공간을 주어 화살을 담을 수 있게 하였고, 뒷면의 윗단은 가늘고 길게 올려서 화살 윗부분과 장착자를 보호하였다.

3. 조선시대

조선조에 와서도 활쏘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매년마다 거행하는 식년무과(式年武科)를 비롯하여 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 등 특별 과거가 있었으며, 이미 벼슬에 오른 자에게도 활쏘기를 시험하는 취재(取才)등의 제도가 있어 활쏘기를 못하는 자는 무인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활쏘기는 남자가 갖추어야 할 육예의 일문으로 여겨 문무를 가리지 않고 활쏘기를 권장하였다.

24) 유영기, 「弓道の 概要」 『韓國의 竹箭』, 도서출판 동화기술, 1987, 21쪽.
이강철, 『弓矢匠』, 문화재관리국, 1992, 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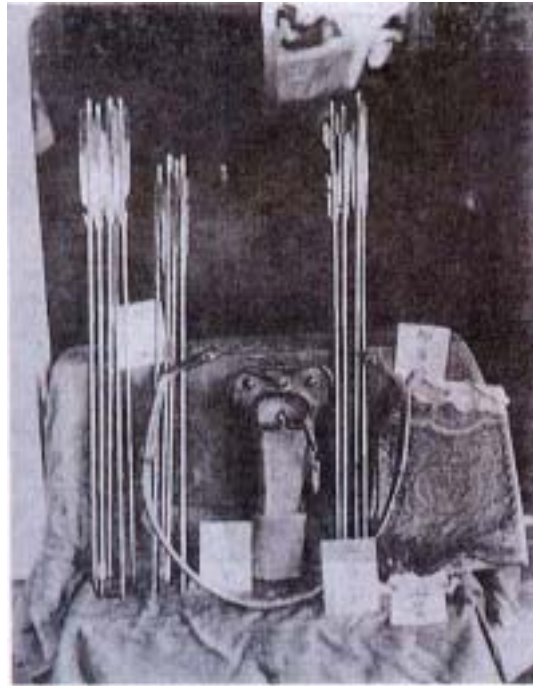


사진23 전(傳) 이성계의 활과 화살, 화살통, 궁대

사진 23. 전(傳) 이성계의 활과 화살, 화살통, 궁대

조선 시대에는 공조와 상의원·군기시 등의 경공장과 외공장 등 국가기관의 수공업장이 있었다. 경공장이란 서울의 관설 수공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공장을 말하며, 외공장이란 지방의 감영·병영·수영 및 주·군·현에 소속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은 모두 관(官)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 종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모두 군역(軍役)대신 수공업장에 동원되어 급료를 받고 각종의 기물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기간 종사하고 기술 수준의 우수한 자에게는 체아직(遞兒職)을 제수하기도 하였다. 이들 장인들은 동원된 기간이 끝나면 독자적인 공장(工匠)을 운영하며 장세(匠稅)를 내면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²⁵⁾ 군기시·상의원의 경공장에서는 활·활줄·화살을 만드는 장인과 궁인(弓人)·궁현장(弓弦匠)·시인(矢人)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공장에서는 통개장(筒介匠)이라는 전통을 만드는 전문 장인이 있었다. 여기서 ‘통개(筒介)’란 ‘통개(筒簡)’로 쓰기도 한다. 옛 문헌에 의하면²⁶⁾ 동개란 활과 화살을 넣을 수 있는 모든 기구를 일컫는 한국 고유어로 옛사람들은 ‘동개(筒介)’또는 ‘동개(筒簡)’라는 한자의 음을 빌어 사용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활통을 ‘궁대(弓袋)’또는 ‘궁채(弓靫)’라고 하거나²⁷⁾ ‘호창(虎韮)’등으로 호칭하고²⁸⁾ 살통은 ‘궁전호로(弓箭葫蘆)’·‘노전호로(弩箭

25) 鄭夏明, 「在來兵器의 發達」 『韓國古代武器體系』, 陸軍本部, 1979, 112-113쪽.

26) 《훈몽자회》(중종22년(1527). 최세진 찬, 목판 3권 1)에 革步(동개보 : 革步) 자를 ‘동개’로 풀이하고 있으며, 《역어류해(譯語類解)》(숙종 16년(1690). 신이행(愼以行)·김경준(金敬俊) 찬, 목판 2권)에서는 ‘대(岱)’자를 ‘활년논동개’로 풀이하며, 《박통사언해중간(朴通事諺解重刊)》(숙종 3년(1677). 박세화(朴世華), 목판본 3권)에는 ‘전대(箭岱)’를 ‘동개’로, ‘전어대(箭馭岱)’를 ‘살 동개’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역어류해보》(영조51년(1775). 김홍철 편)와 《한청문감(漢淸文鑑)》(李洙 撰 만주어사전)에서는 ‘산전(撒箭)’을 ‘살 동개’로 풀이하고 있다.

27) 曾公亮, 《武經總要》

成東·鍾少異編著, 《中國古代兵器圖集》, 解放軍出版社(1990)에서 채인용.

28) 《三才圖會》 器用六卷, 兵器類 弓靫及弓箭葫蘆條

虎蘆)’·‘전채(箭靥)’라 하거나²⁹⁾ ‘어복(魚服)’이라 하였다.³⁰⁾ 중국에서 동개(筒介)·동개(筒簡)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개는 순우리말로 생각된다. 즉

동개장(筒介匠)은 활·화살통을 만드는 장인으로 《경국대전》에는 공조에 한 사람이 있었고,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에는 두 사람의 장인이 배속되어 있었다고 했다.³¹⁾

그러나 이들 외에도 활과 화살통을 제작하던 장인은 지방에도 다수 있었다. 그 예로 《난중일기》에 활통인 ‘궁가(弓家)’를 제작하는 장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궁가는 배와 무명으로 만든 활통으로³²⁾ 병신년 3월 24일조에 ‘헌 활집은 배로 만든 것이 8개 무명으로 만든 것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 활집 하나를 고쳐 만들려고 감을 내주었다’라고 하여 충무공의 진영에도 활집을 제작하는 장인이 배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활을 제작하였던 궁인(弓人)인 지이(智伊)·춘복(春卜)등과 화살을 제작하는 시인(矢人) 박옥(朴玉)·옥지(玉只)·무재(武才) 등이 인명이 보인다. 즉 공조에 소속되었던 동개장은 특수한 물품만을 제작할 뿐, 군에서 사용되는 동개는 각 도와 관찰 진영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든 동개는 상부인 중앙 관아로 올려 보내기도 하였다.

서울의 군기시와 지방관부 소속의 장인들이 매월 소정의 무기를 제작하여 공납하는 것을 월과군기(月課軍器)라 하였다. 월과군기는 주로 군인의 무장과 유사시에 대비한 비축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국왕의 무구나 출행 때에 행하여지는 지방 진상 제도가 있었는데 이 방물(方物)은 보통 특수한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며 제작 과정도 특별한 장식 등을 요구하므로, 생산 과정에서 장인들 뿐만 아니라 민정(民丁)들과 당번군사(當番軍士)까지 참여하였다. 이들 방물군기(方物軍器)의 제작은 각 도 내에 수개의 도회소(都會所)를 지정하고 주변 군현에서 재료와 부역을 하게 하여 집결시켰다. 그들은 감독관의 기술 감독하에 제작하였다. 그러나 생산량에 일정한 규제가 없어서 지방관이 자의로 과다하게 생산하는 예가 많아 민폐가 극심하였다. 그래서 단종 원년(1453)에는 연간 도회소에서 제작할 무기의 품목과 수량을 규정하고 군기감에서 정한 규격과 제법에 따라서 제조하고, 만일 견고하고 정밀하지 못하면 공장과 해당 수령 및 감독관을 문책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³³⁾

<표2> 단종 원년 제정의 방물군기

29) 앞의 각주와 동일

30) 앞의 각주와 동일.

31) 法制處,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 一志社, 1988. 522쪽.

《大典通編》 工典 工匠條, 1963. 703쪽.

《韓譯大典會通》 工典 工匠條,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2. 633쪽

32) 李舜臣著·李殷相譯註解, 《亂中日記》, 玄岩社, 1990. 133쪽, 內甲 三月 二十四日 辛酉條에 ‘舊弓家布八綿二張 弓家一改洗作次出給’이라 하였다.

33) 鄭夏明, 『韓國古代武器體系』, 陸軍本部, 1979. 122-123쪽.

도	都會所	소속관	군기명과 수량
경상 좌도	내상(內廂)	밀양, 울산, 청도, 연양 장기, 영산	甲(4部) 冑(4項) 角弓(20張) 長片箭 (20部) 弓袋(20部) 羅韜筒兒(20部)
경상 우도	경주	本部 영천, 홍해, 경산, 신령, 의흥, 영일, 하양	甲(6部) 冑(6項) 角弓(30張) 長片箭 (25部) 弓袋(30部) 羅韜筒兒(30部)
	내상	김해, 창원, 함흥, 선령, 칠원, 진해	甲(5部) 冑(5項) 角弓(25張) 長片箭 (25部) 弓袋(25部) 羅韜筒兒(25部)
	성주	本州 대구, 함천, 조계, 창령, 현풍, 거창, 고령, 지례	上同
	안동	本府 순흥, 영주, 예천 용관, 의성, 군위, 비안, 풍기, 예안, 봉화	上同
	진주	本州 함양, 삼가, 남해, 하동, 안음, 산음, 단성	上同
	상주	本州 선산, 금산, 개령, 문경, 함창, 인동	甲(4部) 冑(4項) 角弓(20張) 長片箭 (20部) 弓袋(20部) 羅韜筒兒(20部)
	영해	本府 영덕, 청송, 진보	甲(3部) 冑(3項) 角弓(15張) 長片箭 (15部) 弓袋(15部) 羅韜筒兒(15部)
	동래	本縣 양산, 기장	甲(2部) 冑(2項) 角弓(10張) 長片箭 (10部) 弓袋(10部) 羅韜筒兒(10部)
	사천	本縣 고성, 곤양, 거제	上同
충청 도	내상	홍천, 덕산, 아산, 대흥, 정산, 신창, 평택, 결성, 예산, 온양, 직산, 천안	甲(5部) 冑(5項) 角弓(25張) 長片箭 (25部) 弓袋(25部) 羅韜筒兒(25部)
	충주	本州 진천, 단양, 청풍, 괴산, 제천, 영춘, 음성, 연풍	甲(4部) 冑(4項) 角弓(20張) 長片箭 (20部) 弓袋(20部) 羅韜筒兒(20部)

도	都會所	소속관	군기명과 수량
충청도	옥천	本州 청주, 보은, 문의, 영동, 양인	上同
	공주	本州 임천, 은진, 부여 연산, 석성, 이산, 진잠	甲(3部) 胄(3項) 角弓(15張) 長片箭(15部) 弓袋(15部) 羅韜筒兒(15部)
	남포	本縣 서천, 보령, 한산 홍산, 비인, 청양	上同
	태안	本部 서산, 오천, 당진	甲(2部) 胄(2項) 角弓(10張) 長片箭(10部) 弓袋(10部) 羅韜筒兒(10部)
전라도	전주	本州 금산, 여산, 고산, 진산, 무주, 용담, 진안, 장수	甲(5部) 胄(5項) 角弓(25張) 長片箭(25部) 弓袋(25部) 羅韜筒兒(25部)
	남원	本府 광주, 담양, 순창, 임실, 곡성, 구례, 창평, 동복, 화순, 진원, 운봉, 옥과	上同
	나주	本州 영암, 무안, 함평 남평, 장성	甲(4部) 胄(4項) 角弓(20張) 長片箭(20部) 弓袋(20部) 羅韜筒兒(20部)
	순천	本部 낙안, 보성, 홍양, 광양	甲(3部) 胄(3項) 角弓(15張) 長片箭(15部) 弓袋(15部) 羅韜筒兒(15部)
	내성	장흥, 강진, 능성, 해남, 진도	上同
	옥구	본현, 익산, 임파, 함열, 김구, 용안	甲(2部) 胄(2項) 角弓(10張) 長片箭(10部) 弓袋(10部) 羅韜筒兒(10部)
	부안	本縣 김제, 고탁, 태인, 정읍, 만경	上同
	무장	本縣 영광, 고창, 흥덕	上同
강원도	간성	本部 고성, 통천, 흙곡, 인제, 양구, 회양	甲(4部) 胄(4項) 角弓(20張) 長片箭(20部) 弓袋(20部) 羅韜筒兒(20部)
	원주	本州 평강, 횡성, 홍천, 영월	甲(3部) 胄(3項) 角弓(15張) 長片箭(15部) 弓袋(15部) 羅韜筒兒(15部)
	강릉	本府 양양, 정선	上同
	춘천	本府 금화, 김성, 이천, 낭천, 평강, 안협, 철원	上同
	삼척	本府 평해, 울진	甲(2部) 胄(2項) 角弓(10張) 長片箭(10部) 弓袋(10部) 羅韜筒兒(10部)



사진24. 《오례의》에 실린 궁대와 시복
현존 유물의 궁대와 시복과는 모양이 약간 다르다.
즉 시복이 현존 유물 보다 훨씬 가늘고 긴 모습이다

즉 국가가 지정한 동개 장인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경공장인 공조에는 1~2명 정도가 있었을 뿐이나, 실질적으로 동개를 제작할 수 있었던 장인은 각 도의 부·군·주·현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들은 국왕에게 진상하는 물품을 만들 정도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시대 말기에 들어서는 군기시에서도 동개를 제작하는 장인이 배속되어 있었는데, 《대전회통》에는 동개장이 공조에 2명이 배속되었을 뿐 군기시에는 궁인·시인·궁현장만이 소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특이한 일이다. 이들 동개장은 《육전조례(六典條例)》 병전(兵典) 군기시 조(條)에 공장에 ‘원궁인(元弓人)·가조궁인(加造弓人)·시인(矢人) 각 4명과 통개장(筒介匠)·통아장(筒兒匠)·아통아장(兒筒兒匠)·쟁장(錘匠) 각 1명, 치장(治匠) 16명이 있었다. 이들은 조성할 물목을 수시로 해당 공장에서 차용한다’라고 하여³⁴⁾ 통아장·아통아장이라는 새로운 장인과 함께 동개장을 군기시에 소속시키고 있는데 통아장은 편전을 발사할 수 있는 대통과 같은 무구를 만드는 장인이다. 또한 이 동개는 각 도의 감사·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첨사(僉使)·만호(萬戶) 등이 하직할 때와 친임시사후(親臨試射後)의 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³⁵⁾한편 조선 시대는 활·화살통을 일컫는 말로 동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조선 시대 사용된 활통과 화살통의 명칭

34) 《六典條例》 兵典 軍器寺條. 法制處. 1967.185쪽.

35) 법제처. 앞의 책. 1967. 191쪽.

문헌	용도	문헌	간행연대	비고
			사용연대	
矢箠	화살통	목민심서	使(?)태안군수 崔潤德	工具 工作條에 “崔潤德이 태안군수로 있을 때 차고 있던 矢箠장식이 떨어져 공장이(官鐵)로써 보수하였는데 그는 즉시 그 쇠붙이를 떼어내라 하였다”고 하였다.
箭筒	화살통	세종실록	사용 1425년	7년 정월 기축條에 ‘親宗親宰樞射 以都摠制曹備衡重中最多 特賜箠具弓箭及箭筒一 其餘勝者 亦賜箭筒各一’이라 하였다.
箠	화살, 활통	세종실록	사용 1425년	상동
箭筒	화살통	세종실록	사용 1426년	8년 12월 무인條에 “又命內禁內侍衛及司僕官上大議軍 騎射 三發 三中者各賜箭筒”이라 하였다.
箭筒	화살통	세종실록	사용 1428년	10년 7월 21일 條에 예조에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첩정에 의하여 계하기를 사신과두목이 명주실 箭筒 軍弓 등을 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矢箭	화살통	세종실록	사용 1433년	15년 오월 기미 條에 노획한 장비물목중 “角弓 21·箭 420·還刀 3·矢箭 8·羅韜 3·弓 3·槍刀 28”이라 하였다.
弓帑	활통	세종실록	사용 1433년	상동
矢筒	화살통	세종실록	사용 1447년	29년 11월 신해 條에 신기전을 “騎射或挿於腰間 或挿於矢筒 馳馬而放射之”라 하였다.
筒介	활, 화살통	경국대전	간행 1474년	공조에 동개장이 1명
弓帑	활통	오례의	간행 1474년	활의 동개[韃]는 검은 가죽으로 만들며 띠[帶]는 녹피로 만든다.
矢箠	화살통	오례의	간행 1474년	箠은 韻會에는 “북”으로 통해 쓴다. 詩圖에는 “화살을 넣는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저피로써 이를 만들고, 띠는 녹피를 사용한다.

문헌	용도	문헌	간행연대	비고
			사용연대	
□	화살통	오위법전	간행 1492년	문종제로 이수전(以受箭)이라 하였다.
韃	활통	오위법전	간행 1492년	문종제로 이수궁(以受弓)이라 하였다.
箭筒	화살통	중종실록	사용 1537년	32년 3월 13일 명사신에게 도승지朴弘麟이 弓矢와 箭筒을 선사하였다.
箭筒	화살통	중종실록	사용 1543년	38년 3월 14일 성종이 글씨를 좋아하여 때로는 箭筒을 내리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써서 드리게 하였다.
弓家	활통	난중일기	사용 1596년	병신년 3월 24일條에 “舊弓家布八錦二張 弓家一改洗作次出給”이라 하여 활통을 궁기라 하였다.
筒介	활, 화살통	대전통편	간행 1785년	공조에 동개장이 2명
箭箠	화살통	목민심서	간행 1801~1818사이	병전 勤武條에서 상을 주는 물건으로 角弓과 화살촉·片箭·등과 함께 箭筒을 들고 있으며, 箭筒은 남쪽에 좋은 것이 많다고 하였다.
箠箠	활, 화살통	목민심서	상동	위의 내용과 동일. “箠”은 활집이고 “箠”은 화살통이다.
箠箠	활, 화살통	목민심서	상동	병전 修兵條에 군현의 군기고에 弓矢·槍刀·鳥銃·火藥鉛丸·旗幟·甲冑箠箠·銅·帳幕이 있다 하였다.
筒筒	활, 화살통	만기요람	간행 1809년	軍政編에서 大殿에 供上하는 품목에 보이며 龍虎營의 軍器目錄에도 있다.
擔筒筒	활, 화살통	만기요람	간행 1809년	摠戎廳의 군기목록에 보인다.
別筒筒	활, 화살통	만기요람	간행 1809년	御營廳의 군기목록에 보인다.
捌□	활, 화살통	무신수지	간행 1809년	“捌”은 화살통이고 “□”은 활집이다.
筒介	활, 화살통	대전회통	간행 1865년	공조에 동개장이 2명이다.
筒筒	활, 화살통	육전조례	간행 1867년	군기시에 동개장이 1명이다.

이상이 조선 시대에 사용되었던 활과 화살통의 명칭이다. 이외에도 자료가 많아서 다른 명칭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화살통의 재질과 형태에 따라 달랐다. 그중 《세종장헌대왕실록》오례의(五禮儀) 병기도설(兵器圖說) 조에 궁대와 시복을 도면과 함께 해설하고 있어 활과 화살통 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궁대(弓岱)는 활의 동개[韃]다. 검은 가죽으로 이것을 만든다.

띠는 사슴가죽[녹피(鹿皮)]를 사용한다.

시복(矢箠)·복(箠)은 운회(韻會)에는 ‘복(服)’이라 통칭해 쓴다.

시도(詩圖)에는 ‘화살을 넣는 그릇’이라 하였고, 지금은 저피로써 이를 만든다.

띠는 녹피(鹿皮)를 사용한다.’

라고 하여 활집은 궁대·화살집은 시복으로 활과 화살을 넣는 통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간행된 《경국대전》에는 활과 화살을 제작하는 장인을 동개장(筒介匠)이라 하고 있으며 이것보다 앞선 세종 7년(1425)에는 ‘전통(箭筒)’이라는 화살통의 명칭과 함께 복건(箠韃)이라는 활과 화살통의 명칭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도 전통이라는 화살통을 복(箠)이라는 화살통과는 다른 물품으로 여겼으

며, 복은 위에서 말한대로 시복이고 전통은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화살통으로 보인다.



사진25. 《무예도보통지》의 궁대 모습

사진 25. 《무예도보통지》의 궁대 모습



사진26. 《삼재도회》의 어복도(魚服圖)

사진 26. 《삼재도회》의 어복도(魚服圖)

또한 건(韃)은 역시 위에서 말한 궁대인데, 건은 오례의 외에 문종 때에 쓰여진 《오위진법(五衛陣法)》의 서문에도 당신속고건(當身屬囊韃)의 제하에 ‘고(囊)“자는 음을 高라고 읽고, 구음절(九音切)로는 고이수전건이수궁(囊以受箭韃以受弓)’이라 하여 고(囊)는 화살통이고 건(韃)은 활통임을 밝히고 있다.³⁶⁾ 이들 중 전통(箭筒)은 궁시(弓矢)와 함께

품질이 우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 10년 명나라 사신이 탄궁(彈弓)과 전통(箭筒)을 탐내었던 사실과 중종 32년 도승지 박홍린(朴弘麟)이 태조가 명나라의 세보에 이인임(李仁任: ?~1388)의 아들로 되어 있는 오인을 바로잡기 위한 선물에 전통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는 지전통이 우수한 품질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중종 38년에 아버지인 성종이 글씨를 좋아하여 때때로 전통을 내리고 글 잘 쓰는 사람에게 글을 써서 드리게 하였다 하여 지전통에 글을 쓰는 전통이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지전통은 오동이나 죽전통보다 습기방지력이 우수하고 가벼우므로 상품으로 치는데³⁷⁾고종 황제가 사용하던 전통도 지전통에 비단으로 장식을 하고 ‘지정체직연후심고(志正體直然後審固)’라는 명문을 썼다.

또 한가지 독특한 기록으로는 세종 29년에 보이는 전통이다. 이 기록은 기병이 말을 타고 달리며 신기전(神氣箭)을 발사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보아 이 전통은 나무나 대나무 등의 단단한 재질로 제작된 것이다. 신기전은 로켓 화살로 스스로 화약의 힘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화약통(火藥筒)의 뒤로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을 견디기에는 재료가 지승제(紙繩製)보다 나무나 대 등의 단단한 재질이 용이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기전을 발사하는 도구로 세종 23년(1441) 10월 1일 조에 보이는 ‘화초(火鞘)’ 있다. 이것은 대나무를 4~5척 정도 잘라서 구멍을 통하게 하고 얇은 쇠판으로 붙인 다음 사용한다고 하였다. 신기전을 일명 ‘금촉소주화(金鑢小走火)’라고도 하는데 화살을 전통에 넣어서 안장에 걸쳐 두었다가 군사가 피로하여 활을 당길 힘이 없을 때 사용했기 때문에 대나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전통의 재질보다는 기병이 전통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사진 27. 《중국고대병기도집(中國古代兵器圖集)》의 궁채(弓靛), 궁전호로(弓箭胡虜), 궁대, 전채도(箭靛圖)

36) 文宗著, 『兵將設·陳法』五衛陳法序文條,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3. 126쪽.

37) 大韓弓道協會, 「弓矢의 附屬品」『韓國의 弓道』, 大韓弓道協會, 1986. 70쪽.



사진28. 김홍도의 활쏘기 중 전통의 모습, 18세기

사진 28. 김홍도의 활쏘기 중 전통의 모습, 18세기



사진29. 동계일습, 조선 후기, 서울대학교 박물관
궁대와 서북이 함께 얹어지 있으며 축들이 짝지도 함께 갇춘.

전문적으로 사용하고자 제작한 ‘화초(火鞘)’에 대한 기록도 여기에만 보인다.³⁸⁾이후의 기록으로 《목민심서》에 보이는 ‘창복(輶輶)’은 활과 화살통을 일컫는 말로 창은 활통이고, 복은 화살통이라고 하였다. 《만기요람》에 기록된 담동개(擔筒筒)·별동개(別筒筒)라는 명칭에서 동개(筒介)라는 말은 활과 화살통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질도 저피(猪皮)·녹피(鹿皮) 외에 흑서피(黑鼠皮)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담동개는 메는 동개로 해석된다. 보통 동개는 활통은 왼쪽에다 메고 화살통은 오른쪽(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차고 다니게 되어 있으므로 담동개를 한자 풀이로 ‘메는 동개’로 단정짓는다면 기존의 동개와는 또다른 형식의 동개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진31. 서북, 조선 후기, 고려대학교 박물관

38) 許善道,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21쪽.
蔡連錫, 『韓國初期火器研究』, 일지사, 1981, 48쪽의 각주.



사진33. 시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사진33. 시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사진 33. 시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장식이 없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렵용 화살집.

조선시대의 궁대는 활을 넣는 통이고 시복은 화살을 담는 통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두가지 명칭은 생활화되지 않은 것으로 궁가·고·건·봉·창·창복 등의 명칭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통상은 이 두 가지를 합쳐 동개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통은 흑 시통(矢筒)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조선조의 초기에서 후기까지 독자적인 명

칭을 사용하고 있어 호칭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들 활과 화살통을 패용하였던 군사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록이 미미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보이는 기록을 살펴보면, 순조 9년(1809)에 발행된 《만기요람》과³⁹⁾ 고종 4년(1867)에 간행된 《육전조례(六典條例)》를 중심으로 그 일부가 보인다. 동개는 활을 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것인데 기록에는 대전공상용(大殿供上用)⁴⁰⁾에서 왕세자 호위의 사어용(司禦用)⁴¹⁾, 각 도의 감사·유수·병사·수사·첨사·만호 등에게 하사하는 물품, 시사후(試射後)의 상⁴²⁾에서 일반의 군사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공상용의 경우에는 값비싼 물품으로 각궁 1장이 15냥, 편전 1부 4냥, 적마전(狄磨箭) 1부 6냥임에 비해 통개는 25냥 2전으로 각궁 2장 값에 가깝다. 이 중 군사소용의 활과 화살통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활과 화살통의 사용예

명칭	소속	출전	비고
筒箇	世子 翊衛司	《육전조례》 兵典 世子翊衛司條	왕세자가 대궐 밖으로 거동할 때에는 翊衛는 墨團令에 패검하고 司禦는 용복에 筒箇를 패용하고 협연하며
筒箇	軍器寺 弓箭色	《육전조례》 兵典 軍器寺 弓箭色條	弓箭·箭竹·筒箇·筒兒·弓弦은 傳敎에 의하여 각도의 監司·留守·兵使·水使·僉使·萬戶가 하직시에 사급하고 親臨試射 뒤의 상격이 소용되는대로 진배한다.
生皮墨 漆筒箇	軍器寺 別造色	《육전조례》 兵典 軍器寺 別造色條	매년 15부를 진상하는데 方物筒箇造成物力 13部와 아울러 惠廳에 보고하여 보유물자 중에서 受來한다.
筒箇	禁軍	《만기요람》 內三廳 戎器點考	영조 30년(1754)에 정한 규례에 禁軍의 매명에 대하여 戰笠 1점·筒箇 1점·長箭 20·片箭 15·還刀 1점·馬鞭 1점·筒兒 1점·要鉤金 1점·校子弓 1점·甲冑 1점·鞭棍 1점인데 훼손되는대로 매달 첫달에 교환하여 준다.
筒箇	龍虎營	《만기요람》 龍虎營軍器條	筒箇 118부(내외 수직소에 준다) 桶兒·要鉤金·馬鞭 각각 118개·還刀 1400자루 등 보유군기의 항목이 보인다.
別筒箇	衛營廳	《만기요람》 御營廳軍器條	角耳 290개·弓弩鐵絃 8개·別筒箇 330부(257부는 지방군에게 나누어 준다)·戰車 51량 등의 기록이 보인다.
筒箇	摠戎廳	《만기요람》 摠戎廳軍器條	장전축 2022개·편전축 210개·筒兒 263개·弓弩機 69부·還刀 818자루·倭長劍 2자루·筒箇 310부(黑鼠皮 筒箇 27부)등등
擔筒箇	摠戎廳	상 동	擔筒箇 323부(312부는 장아병과 기대장등에게 나누어 준다)
擔筒箇	摠戎廳 臨津鎮	상 동	還刀 255자루·長箭 24부·擔筒箇 24부·교자궁 24장·扁擔 18개 등이 보인다.
擔筒箇	摠戎廳 長山鎮	상 동	還刀 255자루·長箭 24부·擔筒箇 24부·교자궁 24장·扁擔 18개 등이 보인다.

39)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역. 《萬機要覽》 軍政編. 민문고. 1989.

40)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역. 《萬機要覽》 재용편 供上誕日節日表裡物膳衣不對條·陳賀條. 민문고. 1989. 44-45쪽.

41) "왕세자가 대궐 밖에 舉動할 때에는 翊衛은 黑團令에 佩劍하고, 司禦는 戎服에 筒箇를 佩用하고.."라 하였다.(《六典條例》 世子翊衛司條).

42) 法制處. 《六典條例》 軍器寺條. 法制處. 1967. 191쪽.



사진 34. 전대함. 조선 중기, 육군박물관

많은 화살을 담아 마차로 실어 나르게 한 목제 화살통 장비

눈에 띄는 기록은 영조 30년(1754)에 제정된 금군(禁軍)이 갖추는 무기(武具)의 목록이다. 이중 활쏘기에 필요한 사구(射具)로는 통개가 1점·교자궁(校子弓)이 1점·장전(長箭)이 20점·편전(片箭)이 15점·통아(筒兒)가 1점이다. 즉 교자궁은 궁대에 넣고 장편전(長片箭)은 시복(矢箠)에 넣는데, 이들이 보유한 무기에 전통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금군이란 궁중을 지키고 왕이 거동할 때 호위와 경비를 맡은 말을 타는 군대이다. 이들이 3척 내외의 길고 가는 형태의 전통을 지니고 말을 타는 것은 매우 불편하였을 것이고, 금군의 보유 무구에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전통(箭筒)은 기병이 사용하는 무구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병서 중 군기의 종류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만기요람》의 용호영(龍虎營)·어영청(御營廳)·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총계청(摠戎廳) 등의 군기 목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즉 전통은 군사들이 전투나 강무[講武: 狩獵]를 위하여 반드시 지녀야 할 무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군사들은 물론 왕과 종친·문무관 모두 활쏘기할 때는 꼭 필요했던 사구였다. 위에서 말한 중종 38년과 성종의 기록, 세종 7년의 종친·재추(宰樞)의 기록, 특히 세종 8년의 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사복(司僕) 등의 기병들도 평상시 연습할 때에는 전통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 전통은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병졸에 이르기까지 활을 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던 생활용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활과 화살통의 명칭과 용도 등을 살피고 통개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에서 말한 통개장은 전투와 수렵에 사용되는 활과 화살통으로 생피·저피 등의 피혁으로 만든 것으로 활과 화살이 1/2이상 노출되는 형태를 취한다. 전통은 동개와는 달리 종이·대나무·나무 등으로 제작하는 연습용 화살통으로 전투나 강무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문무관을 가리지 않고 활쏘는 사람들에게 모두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격전지 등 많은 양의 화살이 필요한 곳으로 담아 운반하는 화살통은 기록으로 전하지 않아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전투가 통상 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성을 지킬 때에 사용하는 화살은 개인이 운반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화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통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육

군박물관의 소장품중에 나무로 제작되어 혼자 운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꺾꽂이 형태를 띠는 전대함에서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연습에 사용되었던 화살통은 한지·대나무·오동나무 등의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런 종류의 화살통 역시 통개장이 전문적으로 제작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사진 35-①② 호미명(虎尾銘) 각궁과 견장전통(網裝箭筒). 19세기.

대한궁도협회

고종이 사용하던 활과 화살통

4. 현존하는 전통

유물로 전해지는 전통은 전투·습사용 화살통과 연습용 화살통이 각 박물관이나 개인·활터 등의 소장품으로 전하고 있는데 수요가 방대하다.

전해지는 연습용 전통은 피가죽·나무·대·종이·어피·지승(紙繩)·나전(螺鈿)·모피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어 여러 형태로 남아 있다. 현존하는 전통의 일부를 살펴보면 대나무를 자재로 사용한 경우에 십장생(十長生)·궁도훈(弓道訓)·용(龍) 등의 문양을 새기거나, 대나무의 마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V자형으로 파내어 골전통을 제작했다. 특히 골전통의 경우에는 명문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재질이 나무인 전통의 제작방법은 나무 자체에 조각을 하여 장식하는 경우와 그 표면에 어피나 가죽·벗나무피 등의 다른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각종 죽제 전통>



사진 36. 죽제 전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상·중), 연세대학교 박물관(하)
대나무 껍질을 벗기고 길게 홈을 파으며 십장생 등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사진 37. 죽제 호문 전통, 조선 후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사진 38. 죽제 초엽문 전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사진 39. 죽제 십장생문 전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청주대학교 박물관, 육군박물관

사진 39. 죽제 십장생문 전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청주대학교 박물관, 육군박물관



사진40. 죽제 십장생문 전통, 조선 후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사진 40. 죽제 십장생문 전통, 조선 후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이를 겹겹이 발라 골재를 형성하고 그림이나 글씨로 장식하였다. 이때 들기름 등의 기름으로 절여서 습기를 피하고 견고하게 하는 경우와 표면에 비단 또는 베로 덧씌운 뒤에 그림이나 글씨를 써서 장식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은 나무와 학을 조각하고 글씨는 주로 궁술에서 지켜야 할 교훈 등을 새긴 것이 대다수이다. 지승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작 과정에 있어 다른 종류의 재료에서는 갖지 못하는 광범위한 표현 양식으로 전통의 윗단 즉 화살깃이 들어가는 부분만을 넓혀서 화살깃이 늘리지 않게 하는 실용성을 갖춘 것도 보인다.

이외에 나전 등의 사치한 전통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전대함이라 불리는 육군 박물관 소장의 화살함과 모피로 제작된 모피전통(毛皮箭筒)이다. 이 둘은 모두 전투 또는 수렵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대함은 나무로 상자를 짜는데 축이 들어갈 부위는 좁고 깃

<목제 전통>



사진41. 용머리형 전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목제 전통으로 용머리가 눈피로 장식되어 있다.



사진42. 누리무늬 전통, 조선 후기, 경상대학교 박물관
흔·알자으로 누리미 있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사진43. 누리무늬 전통, 조선 후기,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타원형의 목제 전통이며 누리무늬를 조각했으며, '관'의 글자가 양자되어 있다.

이 늘리지 않게 하였으며, 상판은 두 개로 나누어 하단 즉, 축이 들어갈 부위에 위치한 부분은 상자에 고정되게 하고 그 윗부분은 경첩을 달아 상하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것은 이동할 때 뚜껑을 닫고 운반함으로써 화살을 안전하게 옮기게 하고, 공급지에서는 뚜껑을 열 수 있게 해 많은 양의 화살을 쉽게 꺼낼 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마차등의 운반 수단을 이용한다면 쉽게 많은 양의 화살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화살통은 육군 박물관 소장의 전대함만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화살통이 많이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모피로 제작된 화살통은 기름을 빼지 않은 생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시복이라 불리는 전투·수렵용 화살통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어 화살을 담을 경우에 살의 2/3이상이 노출된다. 이 화살통은 정식의 시복에 장식이 화려하고 제작에 공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일반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화살통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된다.

이상으로 현존하는 전통의 일부를 각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은 전대함·시복 등 전투·수렵용 화살통을 제작하는 장인은 없고 다만 활쏘기를 중요하게 여겨 심신을 단련하는 방편으로 궁술을 애용하던 선인들이 활터 등의 연습장에서 사용하던 연습용 화살통의 제작 기능만이 전해진다. 그것은 목공예·지승공예·조각공예·피공예·장식공예·배접공예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제작되었으나, 이중 죽전통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의 제작에는 왕대를 다루는 솜씨와 조각기능, 그

리고 부수적으로 지승·장식·배접의 기능이 대다수의 전통 제작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단·형꺇 전통>



사진44. 비단(緞) 전통, 조선 후기, 삼천포대학교 박물관, 육군박물관
종이로 백골을 만들고 그 위에 비단을 입힌 후 송학문을 그려서 장식했다.



사진45. 형꺇(形篋) 전통, 조선 후기, 연세대학교 박물관, 청주대학교 박물관

<어피·가족 전통>



사진46. 어찌전통, 조선 중기, 육군박물관
광자 독재 박물관에 어찌로 장식했다.



사진47. 가죽(虎胎) 전통, 조선 중기, 서울대학교 박물관
광자 독재 박물관에 가죽으로 장식했다.



사진48. 종이(紙製) 전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각종 지승 전통>



사진49. 지승 전통, 조선후기, 육군박물관
줄이를 꼬아서 만든 끈으로 묶어서 만들었다.



사진50. 지승 전통, 조선 후기, 고려대학교 박물관
동일종 했다.



사진51. 지승 전통, 조선 후기, 경상대학교 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육군박물관



사진52. 지승 전통, 조선 후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사진53. 뱃나무 곁질 전통, 육군박물관
뱃나무 곁질을 입힌 가장 보편적 화살통.



사진 54. 자개[螺鈿] 전통, 조선 후기, 육군박물관



사진 55. 반원형 전통, 조선 후기, 서강대학교 박물관
전통의 단면이 반원형을 이루고 있다.

Ⅱ. 전통 제작 방법

1. 제작공구

화살통은 그 자체가 섬세하고 규모가 작은 조각물이기 때문에 제작에 필요한 공구 역시 규모가 큰 것이 없다. 모든 한국의 위대한 예술품이 보잘 것 없는 미술공예 공구에 의해 생산되듯이, 전통 역시 보잘 것 없는 미비한 공구로 이렇게 정교한 예술품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화살통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대, 나무, 쇠, 종이, 어피, 화피, 대모, 나전, 옷 등 성질이 서로 다른 재료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공구가 다양하다.



사진56 전통 화살통 제작을 위한 공구 ①



사진57 전통 화살통 제작을 위한 공구 ②

(1) 톱

대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톱과 각종 장식물(고리목, 마개, 나전)을 만들 때 사용하는 톱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자르는 톱이 필요한데, 이 톱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큰 톱이 아니고 가늘고 섬세한 실톱이다. 모양은 사진과 같으며 크기가 약간 다를 뿐 일반 톱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2) 창칼과 가죽 골무

창칼은 칼날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 가는 선의 문양을 낼 때 주로 쓰인다. 대부분 칼금을 줄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끝이 뾰족한 송곳처럼 되어 있거나 한쪽으로 비스듬히 칼날이 세워져 있어 용도에 따라 크기의 차이가 있다. (손잡이 부분을 포함해서 최고길이 : 26cm). 또 가죽 골무는 엄지 손가락에 끼워 칼금을 줄 때에 손가락이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다.

있어
분

어



사진60. 가죽 골무



사진61-① ② 장갑



(3) 삼각도(三角圖)

삼각칼은 껍질을 벗기고 골을 파는데 필요한 공구로 끝의 모양이 V字형으로 생겼다. 섬세하고 가는 골이 필요할 때는 가는 칼로 사용하고, 굵은 골이 필요할 때는 굵은 삼각칼을 사용한다(최고길이 : 21.5cm)



(4) 평도(平刀)

평도는 끝이 평면(□)으로 생긴 것으로 역시 크기가 다양하다. 문양을 내고 나서 공간의 바닥을 긁어낼 때 쓰인다(최고길이 : 26.5cm)

(5) 원형칼

칼날 부분이 반원형(∩)이다. 문양을 내는데 쓰이고,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다.



(6) 장칼과 채칼

장칼은 긴 쇠파이프 끝을 반원 모양으로 칼끝을 만들어 대나무 통 속에 마디를 제거하는 공구이다. 이 장칼로 대통 속을 제거한 다음 긴 채칼로 문질러 대마디를 완전히 없앤다(길이 : 110.5cm). 채칼은 강한 함석에 구멍을 총총 뚫어 창칼로 따낸 마디 자국을 문질러 부드럽게 정리하는데 쓰는 공구이다.(길이 : 98cm)



(7) 줄

줄은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정리하는데 쓰이지만 주로 장식을 다듬거나 고리 목을 다듬는데 많이 사용한다. 줄의 종류도 그 쓰임새에 따라 납작줄, 둥근 줄 등 다양하다.



(8) 솔

솔은 화살통이나 고리목 또는 용머리 등에 첫 칠을 할 때 사용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다. 우선 풀뿌리 솔 · 돼지털 솔 또는 족제비 털 솔이 있는데 겉모양을 깨끗하게 문질러 먼지를 털는 솔로는 풀뿌리 솔을 사용하고, 초벌먹이는 데는 돼지털 솔을 사용하며, 광택을 낼 때는 부드럽고 가는 족제비털이나 여우털 · 개털을 사용한다.



(9) 글개

글개는 대나무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공구로 꼴을 파서 만드는 전통 제작법에
서만 사용하는 도구이다. 모양은 양쪽으로 손잡이가 있으며 앞쪽에는 예리한 칼날이 있
어 대통을 가슴에 끈게 세워 버티게 하고 앞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대나무의 껍질이 벗긴
다(길이: 33cm)



(10) 반월칼

반월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특히 지전통 제작시 끈을 자르는데 많이 쓰인
다(길이 : 17cm)

(11) 자귀

자귀는 보통 자귀와 같다. 흔히 말하는 옥자귀 형태로 생긴 것은 용두나 밀마개 등
을 다듬을 때 사용하며, 대나무를 다룰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대패 · 끌 · 정

대패는 각종 화살통의 백골을 다듬고 쥘 때 사용한다. 끌은 역시 용머리 · 밀마개 · 밀낚쇠판 등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공구로 나무를 다듬는 끌과 낚쇠를 자르는 끌은 다르다. 낚쇠를 자르는 끌은 무디고 칼날이 없으며 나무를 다듬는 끌은 칼날이 있고 끌이 넓적하다. 또 정은 뽕죽한데 고리 장식인 거북을 만들 때 사용한다.



(13) 가위

가위는 낚쇠판을 자를 때 사용하는 공구로, 모양은 가정에서 쓰는 것과 같으나 크기가 다를 뿐이다. 낚쇠판을 금판 모양으로 만들 때 필요하다.

(14) 망치와 집게

망치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크기만 다를 뿐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이다. 낚쇠못이나 대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화살통 제작에 없어서는 안될 공구이다. 대

나무·대추나무 등으로 몸통과 마개, 고리목 등을 만들 때 그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나무망치로 조각도를 때리면서 문양을 새기거나 조각을 한다. 집게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못이나 장식 등이 잘못되었을 때 사용한다.





(15) 인두

인두는 어피·화피·대모 등을 백골에 붙일 때, 오동나무 전통의 표면을 검게 지질 때, 각종 낚시 장식을 땀할 때 사용한다.



(16) 지필묵

지필묵은 조각하기 전에 화살통 표면에 밑그림을 그릴 때, 참종이를 겹겹이 발라서 만드는 종이 전통의 표면에 문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나전칠 전통에서 나전의 본을 뜰 때 사용한다.



(17) 쇠밀판

쇠밀판은 낫쇠 장식을 만들 때 작업 받침대로 주로 사용된다.

2. 전통의 문양 장식법

1) 문양으로 각출하는 방법

규모가 큰 종이나 대나무 전통에는 문양을 회화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화살통을 4단으로 나누어 아래에 마개가 있는 부분을 운학문으로 표현하는데, 대부분 학은 쌍학으로 하고 상하에 상대적으로 표현하며 그 사이에는 구름을 표현하다. 매 단마다 단의 사이를 문양으로 표시할 때는 대나무의 마디를 이용하여 기하학적 문양으로 일종의 보상문(寶相文)형태를 둘러 표현한다. 4단 중 아래



중간 단은 노송과 대나무·괴석을 서로 혼합하여 표현하고, 그 사이에는 기린이나 사슴이 영지초를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다.

그리고 괴석 사이에서 영지초(靈芝草)를 뜯고 있는 학이 있고 그 위에는 구름 사이로 학이 날고 있다. 노송은 그 굴절과 반굴(盤屈)이 매우 고고하고 기이함이 있다. 또한 괴석과 노송 사이에는 총죽(叢竹)이 표현되어 회화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상부 하단에는 괴석 위에 영지초와 총죽이 있으며 그 사이에 해도(海濤)를 표현하고 중앙에는 거북이가 구름을 토해 내고 있다.

구름은 연기처럼 하늘에 올라 깔리고 그 사이에는 운학(雲鶴)을 상대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한 마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고 한 마리는 괴석 위에서 내려다보는 학을 쳐다보는 모습이다. 특히 중간에 있는 괴석은 하늘 높이 치솟아 상부엔 구름이 가로지르고 가장 위에는 구름 속에 둥근 달이 떠 있기도 하다. 이 부분 역시 매우 고고한 회화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상부의 상단에는 가장 아랫단과 같은 한 쌍의 운학이 표현되어 있다.

김동학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군자를 각출하는 문양 장식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십장생과 괴석 또는 운룡을 계속 이용하면서 그 사이에 사군자를 배치하여 문양의 품격을 높여 문인화적인 요소를 표현하여 화살통의 특색을 살린다. 이 점이 김동학씨의 전통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동학씨는 문양 장식에 있어서 다양한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전통이 비교적 가늘 때에는 양단을 철(喆)자 등으로 장식하고 그 가장자리를 기하학적인 문양을 낸다. 중간 부분은 온통 비룡(飛龍)이 구름을 토하는 형태로 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마치 용이 화살통 전체를 휘감고 올라가는 듯하다.

또 골을 파서 만든 화살통에는 만(卍)자를 연속으로 표현함으로써 미적 표현을 하

기도 하고 철(詰)·복(福)·수(壽)자 등을 큼직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2)문자를 각출하는 방법

화살통은 대개 무인(武人)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구이기 때문에 문자들이 내용은 대부분 무인적인 정신이 깃든 것들이다. 그리고 문자를 화살통에 각출하는 방법은 문양이 있는 전통에는 간단한 문구이고 문양이 없이 골을 파서 만든 전통에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문자는 전통장 자신이 문구를 만들어 각출하는 일이 아니라, 주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표현하는 일이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명한 무사들의 시구(詩句)나 문장을 이용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군자친덕(君子親德)

② 궁필대경이후 능조 검대지이후능리(남자) (弓必待檠而後 能調 劍待砥而後能利)(淮南子))

③ 천보구여 여릉여강 여일명지승 여송백지무 여천지방지 만수무강 (天保九如 如陵如崗 如日明之升 如松柏之茂 如川之方至 萬壽無疆)

④ 수국추광묘경 한□진고우심□전야잔월조궁도 (水國秋光墓驚 寒□陳高憂心□轉夜殘月照弓刀)

⑤ 서해어룡동 맹산초수지
(誓海魚龍動 盟山草水知)

⑥ 정신일도 하사불성
(精神一到 何事不成)

⑦ 화어박후 경유정의 옹목희희
(化於朴厚 經有正義 雍穆熙熙)

⑧ 명월하산불조최고봉선조 불심하인불급선영자선급 궁법하인불능다사자선득
(明月何山不照最高峰先照 佛心何人不及先永者先及 弓法何人不能多射者先得)

전통에 이와 같은 문구들이 보이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한량(閑良)정신에서 나온 듯하다. 한량이란 글 잘하고 낭만을 즐기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늘 애용하는 화살통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구를 각출함으로써 한층 더 궁도의 흥취를 느낄수 있다.

김동학의 전통 문양 장식 방법은 이외에도 수시로 변화하여 상황에 따라 각출하는데, 화조화나 산수화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문양 장식의 기본을 삼는다.

김동학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대부분 본인의 손으로 전통을 만든다. 그림·문자를 비롯한 각종 문양을 그리거나 쓰는 일, 대나무와 나무의 조각, 낫쇠를 비롯한 쇠 다듬, 각종 칠 작업 등을 본인이 직접 한다.



사진 38. 김동학의 화살통에 새겨진 각종문구

3. 각종 전통 제작

1) 죽 전통 제작법

① 각출(刻出 : 彫出) 제작법

죽제 전통 제작은 대나무로 화살통을 만드는 방법이다. 화살통 중 전쟁용 화살통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운동용 화살통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장식과 조각이 화사하고 다채로우며 사치해졌고 실용성 없이 다만 한량들의 운동 용구로 전락하였다.

전통은 대부분 대나무를 재료로 쓴다. 우선 대나무를 고르는 작업이 중요하다. 왕죽을 2년 이상된 것으로 크기를 감안하여 고르는데 대의 표면이 녹색으로 맑게 보이는 것이 좋다. 지면으로부터 1m정도 사이에 하얀 분이 끼어 있는 것과 흑색 반점이 많이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좋다. 대나무를 자를 때는 지면에 바싹 붙여 자르는 것이 좋으며, 그 아래 부분에서부터 90~97cm 정도로 자른다.



사진 79-①. 대나무 고르기

사진 79. <대나무 고르기> ①②③④

대나무는 왕죽을 2년 이상된 것으로 고르는데 대의 표면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과 지면으로부터 1m정도 사이에 하얀 분이 끼어 있는 것, 흑색 반점이 많이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좋다.



사진 80. 대나무 채취

사진 80. 대나무 짜르기

대나무를 자를 때는 지면에 바삭 붙여 자르는 것이 좋으며, 그 아래 부분에서부터 위로 90~97cm 정도의 길이로 자른다.

이렇게 채집된 대나무는 그늘진 곳에 지하 50cm정도 길이로 파고 무더기로 넣어 저장하되, 통풍이 되지 않게 가마니·함석·슬레이트 등으로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2년 이상 저장해 둔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하에 묻어 두는 이유는 대나무의 결을 삭히기 위해서이다.



사진 81. 대나무 껍 삭히기

채집된 대나무는 결을 삭히기 위해서 그늘진 곳에 구덩이를 파서 넣고 통풍과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2년 이상 저장한다.



서현환<1> 대나무 삶기
대나무의 기름(진)을 빼기 위해서 통에 넣고 3일 정도 삶는다. 이렇게 하면 대나무
속의 삭아진 기름이 밖으로 빠져 나오는데, 대나무의 열이 식기 전에 겉에 묻은 끈끈한
기름을 닦고 윤이 날 정도로 문지른다.

사진 82. 대나무 삶기 ①②③

대나무의 기름(진)을 빼기 위해서 통에 넣고 3일 정도 삶는다. 이렇게 하면 대나무 속의 삭아진 기름이 밖으로 빠져 나오는데, 대나무의 열이 식기 전에 겉에 묻은 끈끈한 기름을 닦고 윤이 날 정도로 문지른다.

다음 대나무의 기름(진)을 빼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작된 드럼통에 넣고 3일 정도 삶는다. 이렇게 삶으면 대나무 속의 삭아진 기름이 밖으로 나오는데, 대나무의 열이 식기 전에 겉에 묻은 끈끈한 기름을 형겔으로 닦고 윤이 날 정도로 문지른다. 잘 문질러진 대나무는 열이 식는 동안 그늘진 곳에 세워 두었다가 곧 각도(刻刀)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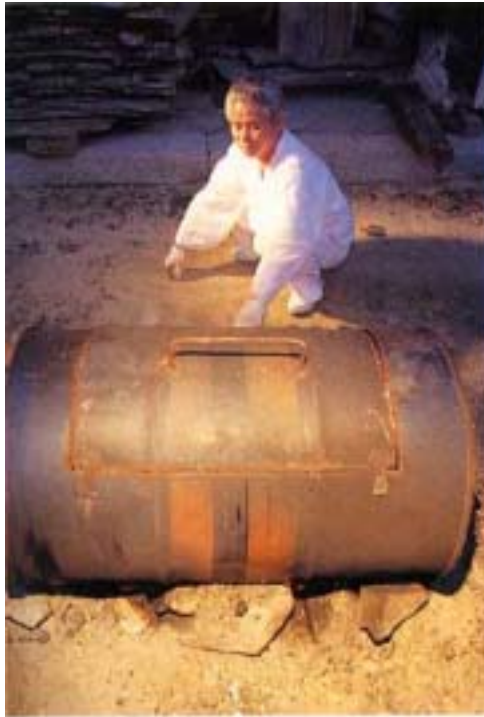


사진82-③. 대나무 삶기

사진 83-④ 대나무를 삶은 후 겉표면 닦기

우선 각도를 하기 전에 도안 설계와 상하 쇄붙임 장치를 하기 위하여 양쪽으로 서서히 칼금을 준다. 문양에 대해서는 앞에서 따로 언급했다. 칼금을 줄 때에는 예리한 칼과 가죽 골무를 끼는데 칼의 종류는 수십 종류가 있다. 문양에 따라 각도를 잘할 때는 칼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문양의 공간을 칼끝으로 긁어서 매끄럽게 하고 머리칼처럼 잔선을 정교하게 골을 파기도 한다. 그리고 문양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삼각도를 이용하여 솔잎처럼 선을 긋기도 한다.



사진 84-①. 밑그림 그리기
화살통 표면에 문양을 각도하기 전에 붓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사진 84. 밑그림 그리기 ①②③

화살통 표면에 문양을 각도하기 전에 붓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사진 85. 각도하기 ①②③④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종류의 칼로 문양을 조각한다.



사진86. 마디 제거하기

사진86. 마디 제거하기

몸통에 조각이 끝나면 몸통 속에 막혀 있는 마디를 창칼과 채칼로 제거한다.

이렇게 몸통에 조각이 끝나면 몸통 속에 막혀 있는 마디를 제거한다. 끝에 칼끝을 만들어 대통 속을 잘 후벼낼 수 있도록 제작한 창칼을 이용하여 마디를 제거한다. 먼저 창칼로 대통 속을 후벼낸 후 채칼로 부드럽게 다듬는다. 이렇게 하여 조각과 통 내부가 다듬어지고 문양이 완전히 끝나면 칠을 먹이거나 도색을 하는데 풀뿌리 솔로 문지른 다음 도색을 한다. 그리고 전통의 마개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사진 87. 칠하기

문양이 완전히 끝나면 칠을 먹이거나 도색을 하는데 풀뿌리 솔로 문지른 다음 도색을 한다.

다음은 전통의 덮개, 밑마개, 고리목 등을 장식을 만드는 작업이다. 덮개는 김동학이 특별히 개발한 디자인으로 전통적인 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용머리라고 하는데 두께는 전통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그 크기의 비율은 전통의 직경이 10~12cm 정도이면 두께는 6cm로 하고 전통의 직경이 7~9cm 정도이면 두께는 5.5cm가 적합하다. 뚜껑은 전통의 몸체와 꼭 맞아야 하기 때문에 뚜껑을 만들 나무 위에 전통을 세우고 연필로 빙둘러 선을 그어 마름질한 다음 깎는다. 대통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머리를 조각할 때는 밑으로 2cm 정도로 남겨 두고 조각하여야 한다. 용머리를 조각하는 방법은 밑부분이 약 5mm정도 전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턱을 만들고 나머지 1.5cm는 낫쇠를 돌려 턱지를 만든다.



사진 88. 다양한 형태의 덮개

마개의 조각 형태는 도사리고 있는 용(龍 :반룡(蟠龍)의 형태로 두부가 크고 꼬리 부분은 약하게 표현하며 눈을 크게 조각한다. 조각이 다 끝나면 칼자국이 없도록 사포로 잘 문질러 도칠 작업에 들어간다. 칠 작업은 적색 칠과 흑색 칠을 혼합하여 10회 이상 한다. 칠하는 방법은 따로 언급하겠다.



사진89-① ② 용머리 모양의 덮개 제작

사진89-① ② .용머리 모양의 덮개 제작

김동학이 특별히 디자인한 덮개는 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사리고 있는 용(龍 : 반룡(蟠龍)의 형태로 두부가 크고 꼬리 부분은 약하게 표현하며 눈을 유독 크게 조각한다.

밑 마개의 나무 재료는 피목이나 물푸레나무 혹은 밤나무·참나무 등 단단한 것을 쓴다. 우선 30일 이상 그늘에 세워 완전히 건조하여 잘 말린 나무를 사용한다. 대통의 크기에 따라 이 나무를 2cm정도 두께로 둥글게 잘라 밑을 막을 수 있도록 다듬는다. 밑 마개에는 어떤 조각이나 문양이 필요없고 잘 다듬어 사포 등으로



사진89-① ② 용머리 모양의 덮개 제작

90-①. 밑마개 제작

밑 마개에는 어떤 조각이나 문양이 필요없고 잘 다듬어 사포 등으로 문질러 매끈하게 정리한다.



사진90-① ② ③. 밀마개 제작

사진 90-② ③. 밀마개 제작.

밀바탕에 낯쇠판을 크기에 따라 잘라 대고 바닥에 서너 군데에 유두처럼 생긴 모양의 발을 박는다. 그리고 다시 대통과 마개를 이은 부분을 없애기 위하여 낯쇠판 테두리를 두르고 낯쇠못을 네 개 정도 박아 고정시킨다.

문질러 매끈하게 정리한다. 그런 다음은 아교나 민어풀로 접착시키고 또 빠지지 않도록 대나무 못을 5~6개 돌아가면서 박아 둔다.

그 다음 밀바탕에 낯쇠판을 크기에 따라 잘라 대고, 바닥에 서너 군데에 유두처럼 생긴 모양의 발을 박는다. 그리고 다시 대통과 마개를 이은 부분을 없애기 위하여 낯쇠판 테두리를 두르고 낯쇠못을 돌아가면서 네 개 정도 박아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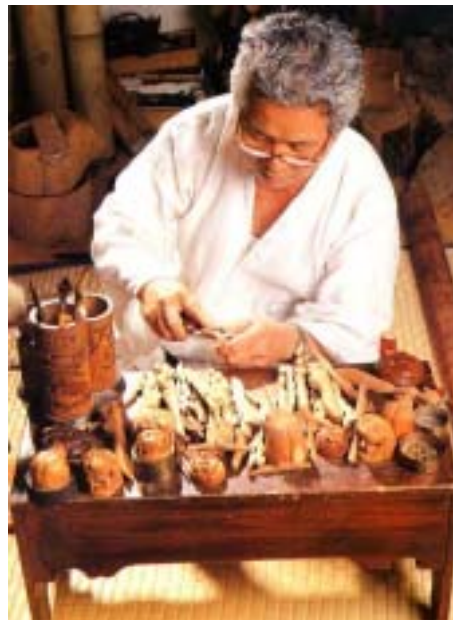


사진92. 고리목 제작 과정 ①②③④⑤

고리가 상하 두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윗부분의 고리 담비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아래를 향하게 하고 아랫부분의 고리 담비는 위의 담비를 향하게 조각한다.

다음 끈을 달기 위한 고리목을 제작하는데 나무의 재료로는 대추나무나 물푸레나무가 적합하나, 대추나무는 색깔도 고울뿐만 아니라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추나무를 이용한다. 고리 모양의 종류는 담비·뱀·용머리 등이 있으나 김동학은 뱀과 담비를 소재로 한다. 고리가 상하 두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윗부분의 고리담비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아랫부분의 고비 담비는 위의 담비를 보고 있게 조각한다. 그러나 끈을 파서 만드는 작은 전통은 대부분 뱀 모양을 사용한다. 이것은 전통이 작는데 큰 담비를 사용하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뱀 모양의 고리 역시 상하를 상대적으로 조각한다.

이렇게 모양이 잘 정비된 고리목은 아교나 민어풀을 접착제로 사용하는데 아교보다는 민어풀이 더 접착성이 강하다. 대통에 고리목을 접착하는 방법은 우선 전통의 상하를 10cm·15cm 정도 크기로 껍질을 적당히 벗기고 고리를 접착시킨다. 접착할 때는 아교나 민어풀이 잘 발라졌는가를 살펴 완전히 하자가 없을 때 비로소 접착한다. 접착 후에 끈으로 단단히 묶어 두었다가 하루쯤 지난 후에 풀어 보면 단단히 붙어 있다.



사진92-5: 고리목 제작 과정

사진 93. 담비, 뱀, 용머리 등 다양한 모양의 고리목



사진94-1: 고리목 용머리

사진 94. 고리목 붙이기 ①②③

고리목은 아교나 민어풀로 접착한 후 끈으로 단단히 묶어 두었다가 하루쯤 지난 후에 풀어 보면 단단히 붙어 있다.

다음은 도칠을 하는 순서다. 칠은 흑칠이나 주칠을 하는데 10회 이상 한다. 옷칠한 전통은 물을 축축히 축인 가마니를 온돌방 안에 깔고 그 위에서 건조시킨다. 이때 문을 밀폐한 후 방에 불을 때면 따스한 습도 때문에 건조가 잘 된다. 건조한 다음 풀뿌리 솔로 윤이 나도록 문지르고 물기있는 수건으로 문양 부분을 돋보이게 특별히 잘 닦아 둔다. 칠은 비교적 여러 번 먹일수록 윤이 나고 좋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물기가 많은 수건으로 닦으면 얼룩질 우려가 있으니 물이 흘러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통에 완전히 칠이 먹여지고 윤택이 나면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옷칠이나 들기름 칠을 한다. 옷칠(생칠)은 3회 이상 10회 정도 칠을 하되 얇게 고루 칠해야 하며 여러 번 반복할수록 좋고 들기름은 6회 이상 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 사용되는 솔은 옷칠은 돼지털이 좋고 들기름 칠은 형짚이 좋다. 옷칠은 습도가 있어야 잘 건조되므로 건조장에 가마니를 깔고 물을 축축히 뿌려서 그 위에 전통을 세워 두면 잘 건조된다. 이때 들기름 칠을 하는 방법은 먼저 전통의 빗간을 내기 위하여 불에 누렇게 구운 다음 풀뿌리 솔로 잘 문질러 먼지와 잔털을 없애고, 기름칠을 형짚에 묻혀 기름 액이 흐르지 않도록 6회 이상 칠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먼지나 습기가 없는 곳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서창화(1) (2) 옷칠

95. 옷칠① ②

칠은 흑칠이나 주칠을 하는데 10회 이상 하며, 건조는 물을 축축히 축인 가마니를 깔 온돌 방 안에서 건조한다.



사진96. 완성된 죽전통

② 꿀을 파서 만드는 전통

꿀을 파서 만드는 전통이란 대나무 표피를 완전히 벗겨내고 거기에 꿀을 파서 화살통을 만드는 방법이다. 먼저 대나무를 얇게 벗기고 터지는(트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속에 넣고 삶아서 기름을 뺀다.



사진 97(左): 꿀을 파서 만드는 전통

사진 97-① ② 골을 파서 만드는 전통

골을 파서 만드는 전통은 일단 대나무 표피를 완전히 벗겨내고 물 속에서 삶아서 기름을 뺀 후 골을 파서 화살통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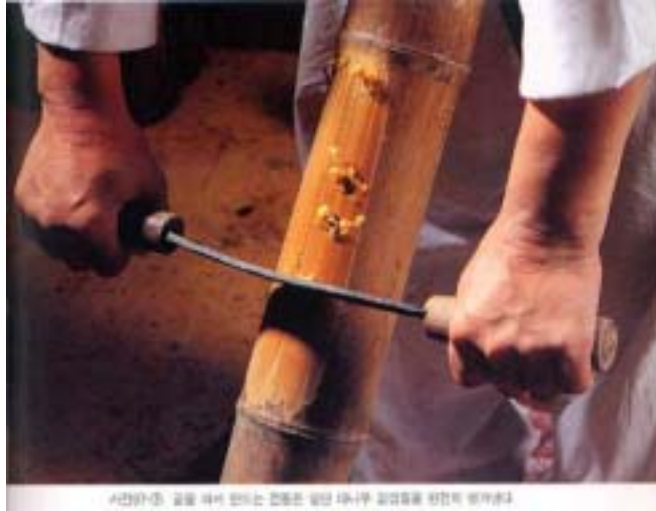


사진 97-③ 골을 파서 만드는 전통은 일단 대나무 겉껍질을 완전히 벗겨낸다.

문양을 살릴 경우에는 문양 부분에 미리 칼금을 주어 골을 팔 때 상하지 않도록 한다. 골을 파서 만든 전통에는 대개 문자나 십장생·사군자·만자(卍字) 문양을 많이 넣는다. 일단 껍질을 벗겨낸 다음, 머리칼처럼 가늘게 골을 파면 껍질을 벗길 때 생기는 칼자국도 없고 몸통 전체가 골을 파서 만든 형태가 된다.



사진 98. 골전통

사진 98. 골전통



사진99: 골을 파서 만든 죽제
만자문 전통,
조선 중기,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99. 골을 파서 만든 죽제 만자문 전통, 조선 중기, 국립중앙박물관

고리를 만드는 방법과 칠을 하는 방법은 모두 조각하여 만드는 방법과 같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전통 상부에 장식을 다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장식은 얇은 닳쇠판으로 하는데 전통의 하부 바닥과 상부의 열쇠 고리 등이다. 하부의 대통이 작을 때는 연꽃 모양으로 바닥을 짜서 만들고, 대통이 클 경우엔 바닥 판을 따로 붙이고 마개의 주변을 링처럼 돌려서 만든다. 그러나 상부는 화살통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모양으로 한다. 고리는 거북이 모양이며 주변을 두르는 데는 금관 모양으로 한다. 장식을 제작하는 방법은 먼저 종이를 7cm 폭으로 잘라 전통에 말아 쥐고 전통 둘레와 같은 길이로 자른다. 자른 종이를 장식할 닳쇠 쇠판에 놓고 종이 크기와 같이 닳쇠판을 자른다. 펼쳐진 닳쇠판은 왕관과 같은 모양의 평면으로 자른다. 닳쇠를 오려낼 때에는 정을 사용하여 망치로 잘라내고, 잘라낸 자국을 줄로 밀어 곱게 다듬는다. 자를 때 상부의 굴곡은 특별히 제작된 두툼한 쇠판의 공구를 사용하여 자른다. 일단 왕관 모양으로 오려진 닳쇠판이 잘 다듬어지면 둥근 쇠파이프에 대고 각목으로 두들겨 둥글게 말아 전통에 붙이기 알맞도록 한다. 이렇게 제작된 왕관 모양의 장식은 화살통에 말아 씌워서 닳쇠못을 박아 고정시킨다.

열쇠를 겸하고 있는 거북 머리 만드는 방법은 두께가 2mm · 폭 7cm · 길이 4cm 정도의 낫쇠판을 잘라서 거북 모양으로 그린 다음 특별히 패인 나무판 위에 놓고 두들기면 거북 모양이 형성된다. 거북 모양이 형성되면 거북 등에 거북 비늘 모양을 그리고 발 부분을 오려서 거북 모양을 완성한다. 거북 머리는 뚜껑 부분의 열쇠고리를 겸하며, 이 부분이 거북의 몸통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면 잠겨지고 열 때는 거북이 머리를 누르면서 열리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있다. 전통이 크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크지 않으면 거북이 고리가 필요없이 낫쇠 마개로 덮어 씌워서 만든다. 덮개 중간에는 낫쇠판으로 크기가 다르게 세 개의 국화 모양을 잘라 포개 씌워서 고리를 단다. 이와 같은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화살통이 크지 않은 것에 많이 사용한다.



사진 100. 각종 낫쇠 장식물

사진 100. 각종 낫쇠 장식물

< 낫쇠장식 만들기 >

상부는 화살통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모양이다. 고리는 거북이 모양이며 주변을 두르는 테는 금관 모양이다.



사진 101. 낫쇠판 다루기 ①②③

낫쇠 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모양으로 가위, 톱, 정 등으로 오린다.

<왕관장식 만들기>

왕관모양으로 오려진 낫쇠판이 잘 다듬어지면 둥글게 말아 전통에 붙이기 알맞도록 한다.

왕관 모양의 장식은 화살통에 말아 씌워서 낫쇠못을 박아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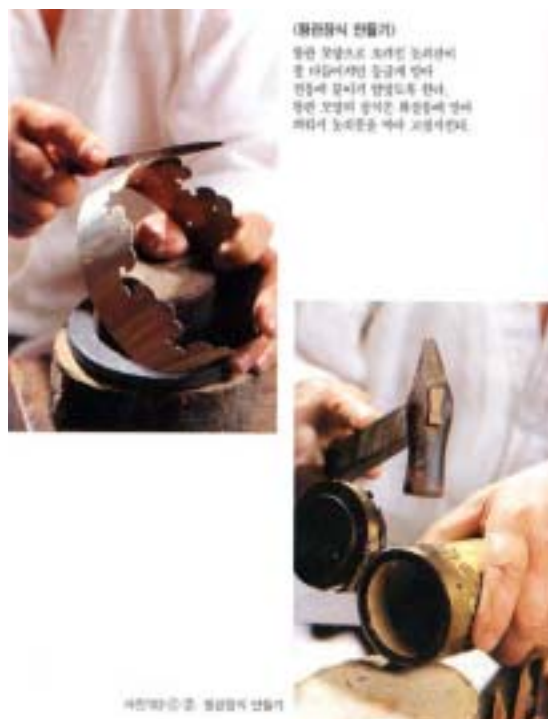


사진 102. 왕관장식 만들기

사진 102-① ② 왕관장식 만들기

<거북 모양 장식 만들기>

놋쇠판을 잘라서 거북 모양으로 그린 다음 특별히 패인 나무판 위에 놓고 두들기면 거북 모양이 형성된다. 거북 모양이 형성되면 거북 등에 거북 비늘 모양을 그리고 발 부분을 오려서 거북 모양을 완성한다. 거북 머리는 뚜껑 부분의 열쇠 고리를 겸한다.



사진103. 거북 모양 장식 만들기 ①②③④

<뚜껑 경첩 및 연꽃 장식>

놋쇠판을 경첩과 연꽃 모양의 본으로 그려서 오리고 정으로 장식하여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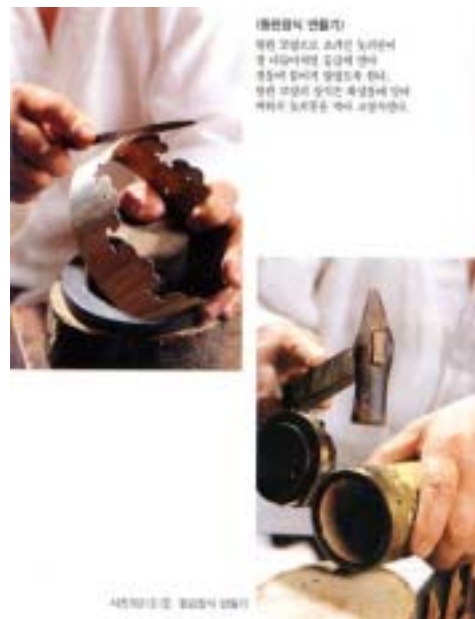


사진 104-① ②. 뚜껑 경첩 및 연꽃 장식

<하부 돛쇠 장식 만들기>

하부의 대통이 작을 때는 연꽃 모양으로 바닥을 싸서 만들고, 대통이 클 경우엔 바닥
판을 따로 붙이고 마개의 주변을 링처럼 돌려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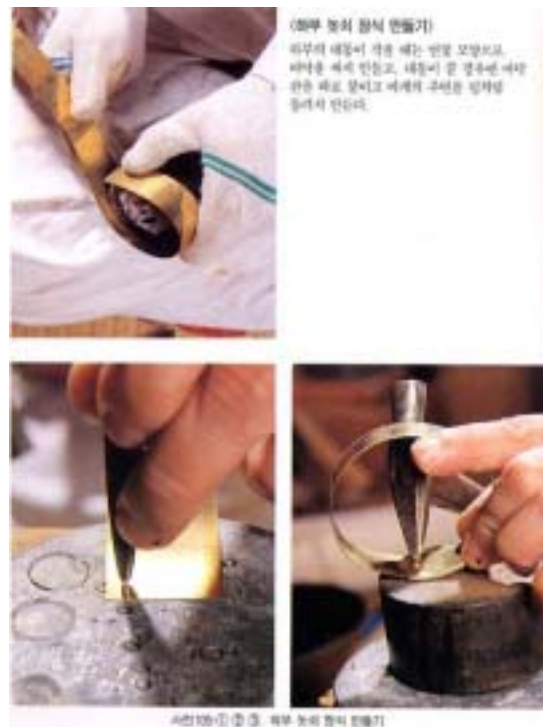


사진 105. 하부 돛쇠 장식 만들기 ①②③④⑤

2) 지 전통 제작법

종이를 재료로 하여 전통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이를 노끈처럼 가늘게 꼬아서 만드는 방법 [지승]이고, 다른 하나는 화살통 모양을 한 긴 둥근 나무 막대기 틀에 참종이[닥으로 만든 종이]를 겹겹이 발라서 바른 다음 나무 막대기를 빼내어 화살통을 만드는 방법이다.

① 참종이를 꼬아서 만드는 법[지승전통]

닥으로 만든 참종이를 반월칼로 3cm 가량의 넓이로 잘라 손으로 노끈을 꼰다. 굵기 2mm, 길이 86~90cm로 꼬아진 노끈은 얼마나 단단한지 문구멍도 뚫을 수 있을 정도이다. 노끈이 준비되면 별잡 매듭으로 밑바닥 기초를 시작하여 차츰 돌아가면서 짜 올린다. 명석 짜는 방법과 유사하다. 상부로 올라가 10cm 정도 길이의 마개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직경의 넓이를 몸통 부분 보다 대개 2cm 정도 더 굵게 만든다. 화살통을 뿔 끈을 다는 자리는 짜올리면서 고리를 미리 만들고, 상부 뚜껑 중심부에서 끈을 매는 고리를 만들어 둔다. 짜 올릴 때의 문양은 장인에 따라 다르지만 조선시대에 남아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지전통은 각종 기하학적인 문양이다.

일단 다 짜진 지승전통은 아무래도 재질이 종이이기 때문에 물렁물렁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풀칠을 하여 뽳뽳하게 만든다. 예전에는 아교를 전체적으로 칠했으나 요즘은 풀칠은 한다. 이렇게 뽳뽳하고 완전한 형태가 이루어지면 옷칠을 한다. 생옷칠은 처음 칠을 하면 검은 색으로 보이지만 1년쯤 지나면 투명하게 변한다. 검붉은 빛깔을 내려면 먼저 바닥에 붉은 도로크를 칠하고 건조시킨 후 옷칠을 하면 1년쯤 지나 대추와 같은 빛깔을 낸다. 옷칠 횟수 10회 정도 해야 한다.

<참종이 자르기>

닥으로 만든 참종이를 반월칼로 3cm 가량의 넓이로 자른다. 손으로 노끈을 꼬는데, 굵기 2mm, 길이 86cm~90cm이다. 꼬아진 노끈은 얼마나 단단한지 문구멍도 뚫을 수 있을 정도이다.



사진 107. 참종이 꼬기



사진 108-①②③. 매듭짜기

노끈이 준비되면 별감 매듭으로 밑바닥에 기초를 시작하여 차음 돌아가면서 짜 올린다.



사진 109. 옷칠하기

완전한 형태의 화살통이 완성되면 먼저 풀칠을 하여 뽳뽳하게 만든 다음 옷칠을 한다.



사진 110. 완성된 지승전통

② 참종이를 겹겹이 발라 만드는 법

이 제작법은 참종이를 직경 5cm, 길이 87cm의 타원형 목재 형틀 위에 두께가 3mm 정도 되도록 여러 번 발라 건조시켜 만든다. 덮개 부분은 화살통 몸체의 목재 형틀보다 좀더 크게 하고, 길이는 5~8cm 정도로 만들어 나중에 몸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양끝의 마개는 화살통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 끼우고 멜방 고리는 박달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단단한 목재를 사용한다. 고리의 모양은 대개 다람쥐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상하의 마개는 단단한 목재로 만들어 민어풀 같은 접착제로 발라서 끼운다. 다음 화살통 바탕에 문양을 그리거나 궁도의 문구를 쓴다. 문양은 붓으로 송학·운룡·사군자 등을 그리는데 대부분 송학죽매(松鶴竹梅)가 많고, 문구는 궁도의 “발이부중 반구제기 정심정기 군자관덕(發而不中 反求諸己 正心正己 君子觀德)”등을 많이 쓴다. 문양은 종이 위에 붓으로 그리기 때문에 비교적 회화적인 요소가 많다. 현재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지전통이 소장되어 있는데 노송(老松)의 문양이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문양이 완성되면 옷칠 또는 들기름·콩기름 등으로 여러 번 칠한다. 옷칠은 10회 정도, 들기름·콩기름은 30회 정도 칠을 한다. 칠이 잘 건조된 후 부드러운 천으로 문질러주면 문양이 선명하게 보여 아주 맑고 깨끗한 작품이 이루어진다. 지제작전통(紙製作箭筒)은 가벼운 것이 특징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사진111. 목제 형틀

사진111. 목제 형틀

<화살통 몸체 만들기>

목제 형틀 위에 참종이를 여러 번 발라서 건조시키고 나중에 형틀을 뽑아내면 화살통의 몸체가 된다.



사진112-① ② 화살통 몸체 만들기

사진112. 화살통 몸체 만들기 ①②③④



사진112-⑤. 화살통 몸체 만들기

화살통 바탕에 문양을 그리거나 궁도의 문구를 쓴다. 문양은 붓으로 송학·운룡·사군자 등을 그리고, 문구는 궁도의 “발이부중 반구제기 정심정기 군자관덕(發而不中 反求諸己 正心正己 君子觀德)” 등을 많이 쓴다.



사진112-⑥⑦⑧. 화살통 뚜껑 만들기

양끝의 마개는 화살통의 형태에 따라 목재로 만들어 끼우고, 참종이로 테를 두른 후 못을 박아 고정한다. 뚜껑은 연꽃무늬 장식의 고리를 단다.



사진113. 칠하기
문양이 완성되면 옷칠 또는 들기름·콩기름 등으로 여러 번 칠한다.

사진113. 칠하기

문양이 완성되면 옷칠 또는 들기름·콩기름 등으로 여러 번 칠한다.



사진114. 완성된 참종이 전통

사진114. 완성된 참종이 전통

3) 오동나무 전통 제작법

화살통은 그 안에 깃털을 붙인 대나무 화살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가볍고 습기가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많이 제작되었다. 오동나무는 가볍고 습기를 받지 않아 조선시대의 무인들은 오동나무 전통을 많이 애용하였다. 화살통 제작은 먼저 오동나무를 3cm의 두께로 켜서 완전히 말린 후 팔각으로 직경 5cm · 길이 85~90cm로 각(角)전통을 만든다. 또 사각의 오동나무 속을 타원형으로 파내고 두 쪽을 마주 붙이고 그 바깥의 사각을 없애면서 깎으면 타원형 오동나무 전통이 된다. 이때 오동나무의 백골을 붙이는 접착제는 민어 · 아교 두 가지 풀을 쓰며, 풀을 붙이고 난 후 하루 동안 노끈으로 꼭꼭 묶어 놓으면 단단하게 붙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동나무 백골을 인두로 지지고 상 · 하 마개와 고리를 만들어 붙이면 오동나무 전통이 되고, 이 오동나무 백골에 대모 · 화피 · 어피 · 나전 등을 붙이면 다양한 종류의 전통이 된다.

일반 오동나무 전통의 상 · 하 마개 덮개는 박달나무 · 대추나무 등 비교적 단단한 목재를 쓴다. 뚜껑의 중심부에 뿔 고리는 낫쇠를 이용해 국화 모양으로 만든 바탕에 낫쇠 철사로 직경 1cm 정도로 둥글게 가락지를 만들어 장식한다. 전통 몸체에는 단단한 목재로 다람쥐나 담비 같은 모양으로 고리를 다듬어 붙인다.

오동나무 백골 전체를 화롯불에 붉게 달군 인두로 검게 지진다. 검게 지저진 표면은 솔로 문질러 닦아내고 그 위에 주로 들기름을 입힌다. 검게 지지면 표면의 장식도 되지 만 쯤이나 벌레가 갉아먹지 않는다. 옷칠을 할 경우 오동은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많은 20~30회 정도 칠하여 말려야 가볍고 좋은 작품이 된다. 이 같은 제작 방법은 오동나무뿐 아니라 각종 잡목으로 만드는 잡목제 작품에도 쓰인다.

<백골 만들기>

오동나무 각 전통은 먼저 오동나무를 완전히 말린 후 팔각으로 켜서, 풀로 붙이고 난 후 하루 동안 노끈으로 꼭꼭 묶어 놓으면 단단하게 붙는다. 사각의 오동나무 속을 타원형으로 파내고 두 쪽을 마주 붙이고 그 바깥의 사각을 없애면서 깎으면 타원형 오동나무 전통 이 된다.



사진115. 백골 만들기 ①②③



사진116. 인두 지지기 ①②③④

오동나무 백골 전체를 화롯불에 불게 달군 인두로 검게 지지한다. 검게 지지된 표면은 솔로 문질러 닦아내고 그 위에 주로 들기름을 입힌다. 검게 지지된 표면의 장식도 되지만 좁이나 벌레가 갉아먹지 않는다.



사진117-①②. 고리목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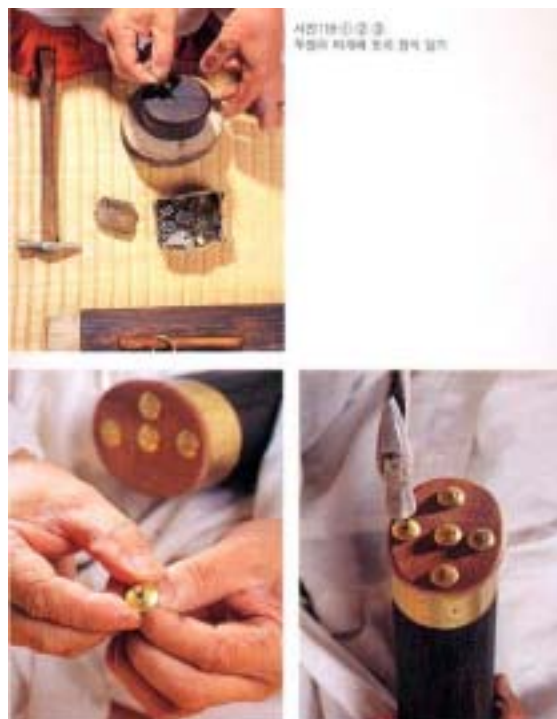


사진118-①②③. 뚜껑과 마개에 못쇠 장식 달기



사진119. 완성된 오동나무 전통

4) 대모 전통 제작법

대모(玳瑁) 제작이란 거북이 껍질로 만드는 방법이다. 거북이의 내장 등살을 제거한 다음 6개월 정도 말리면 작업이 가능하다. 거북이는 일명 대모 또는 백구(白龜)라고 한다. 등 모양은 흰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좋다. 등 모양이 마치 갑옷처럼 붙어 있고 껍질은 소뿔처럼 단단한 성질을 가졌으므로 물에 약간 삶는다. 물에 삶으면 유연성이 생겨 떼어도 부러지지 않고 잘 떨어진다. 떨어진 것을 얇게 문질러 갈아낸 다음 민어풀을 사용하여 다듬어진 거북의 등 껍질을 붙인다. 붙이기 전에는 미리 오동나무로 백골을 만든다. 백골은 팔각이나 원통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원하는 통을 만들어 거북이 등을 붙이기 시작한다. 붙일 때는 껍질이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잘 붙지 않으므로 식초에 담갔다가 붙이거나 30~50℃ 정도의 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유연성이 생긴다. 그 거북 껍질을 따뜻한 인두로 문지르면서 풀로 붙이면 잘 붙는다. 붙이고 난 다음 사포질을 하면 붙일 때 지저분한 것이나 면이 고르지 않던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매끈하게 된다.

그 다음의 고리와 뚜껑·장식 등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이 만든다. 대모는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부자나 고관들이 애용하였던 화살통이다.



사진120-①②. 대모 벗기기

거북 등 껍질은 마치 갑옷처럼 붙어 있고 소뿔처럼 단단한 성질을 가졌으므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유연성이 생겨 떼어도 부러지지 않고 잘 떨어진다.



사진121. 대모 불이기 ①②③④

대모를 얇게 문질러 갈아낸 다음 민어풀을 칠하여 붙이고 사포질을 하면 불일 때 지저분하던 것이나 면이 고르지 않던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매끈하게 된다.



사진122. 상하 덮개 및 각종 낚시 장식 붙이기 ①②③④



사진123. 완성된 대모 전통

5) 화피 전통 제작법

화피(樺皮)란 본래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벗나무 껍질을 말한다. 옛날에는 활을 만들어 겹 표면을 두를 때도 백두산 화피를 사용하였으나, 요즈음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강원도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작나무 껍질을 사용한다.

자작나무 껍질은 보통 둘레가 20cm 이상 되는 자작나무에서 일어나는 껍질을 말하는데 나무를 자를 필요 없이 세워둔 채 껍질에 칼금을 주면 필요한 만큼 껍질이 잘 일어난다. 그렇게 벗겨진 껍질을 약간 물에 적신 다음 손으로 펴서 차곡차곡 놓으면 종이처럼 펴진다. 이것을 약간 무게 있는 돌맹이로 눌러 놓으면 사용하기 좋게 펴진다. 이렇게 채취된 자작나무 껍질은 백골에 붙이기 전날 다시 물에 담갔다가 무거운 돌로 눌러두면 화피가 부드러워지면서 잘 붙는다. 이것이 준비되면 위에서 설명한 대모제작처럼 백골을 만들고 그 위에 참종이를 두어 번 바른 다음 화피를 붙여 나간다. 백골에 먼저 참종이를 바르면 자작나무 껍질이 잘 붙는다. 참종이가 발려진 백골 위에 민어풀이나 아교를 이용하여 인두로 따뜻하게 다리면서 차근차근 한쪽에서부터 붙여 나간다. 민어풀은 민어 부레를 말려두었다가 적당한 농도로 끓이면 풀어지면서 풀이 된다. 화피를 다붙인 후 옷칠이나 들기름칠을 두어 번하면 깨끗하고 보기가 좋다. 자작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기 때문에 옷칠보다도 들기름칠이 더욱 좋다. 다 붙이고 나서 장식과 고리를 다는 것은 다른 전통 제작법과 같다.



사진124. 화피채취

사진124. 화피채취

자작나무 껍질은 나무를 자를 필요 없이 세워둔 채 껍질에 칼금을 주면 필요한 만큼 껍질이 잘 일어난다.



사진125. 채취된 화피

채취된 자작나무 껍질은 백골에 붙이기 전날 다시 물에 담갔다가 무거운 돌로 눌러 두면 화피가 부드러워지면서 잘 붙는다.



사진126-①②. 화피 붙이기

사진126-①②. 화피 붙이기

백골에 참종이를 두어 번 바른 다음 민어풀이나 아교를 이용하여 인두로 따뜻하게 다려가면서 차근차근 한쪽에서부터 붙여 나간다.



사진126-① ② 화피 붙이기

사진126-③. 칠하기

자작나무 껍질은 섬유질이기 때문에 옷칠보다도 들기름칠이 더욱 좋다.



사진127. 완성된 화피 전통

사진127. 완성된 화피 전통

6)어피 전통 제작법

어피(魚皮)란 상어과에 속하는 투갑상어 껍질을 말한다. 해방 전에는 한국의 동해안에서 생산되었으나 지금은 잡히지 않아서 일본이나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해 오는데 그 껍질이 매우 두툼두툼하고 마치 지금의 사포와 같이 겹겹하고 단단하며 거칠다. 껍질은 보름 정도 말리면 다 마르는데 마른 상태로 보관한다. 전통 백골에 어피를 붙이기 전에 마른 어피를 물에 담구어 부드럽게 한 후 물기를 닦아내고 붙인다. 긴 부분부터 아교풀을 이용하여 인두질을 하면서 붙이면 단단하게 붙는다. 붙인 후 하루쯤 건조시킨 다음 사포로 표면을 문지르면 겹겹하고 거친 부분이 갈아서서 번들번들해진다. 그 다음 기름칠을 약간 하면 보기가 좋아진다. 그 다음의 작업은 역시 다른 것과 같다.



사진128. 어피

사진128. 어피

백골에 어피를 붙이기 전이 마른 어피를 물에 담구어 부드럽게 한 후 물기를 닦아내고 붙인다.



사진129-1 어찌 붙이기

사진129. 어찌 붙이기 ①②③④

긴 부분부터 아교풀을 이용하여 인두질을 하면서 붙이면 단단하게 붙는다. 붙인 후 하루쯤 건조시킨 다음 사포로 표면을 분지르면 곱고 거친 부분이 없어진다. 그 다음 기름칠을 약간 하면 보기가 좋아진다.



사진130-1 ② 뚝쇠 장식 붙이기

사진130-①②. 뚝쇠 장식 붙이기



사진 131. 끈매기

사진131. 끈매기



사진132. 완성된 화피 전통

사진132. 완성된 화피 전통

7) 나전칠 전통 제작법

나전칠(螺鈿漆) 제작은 위에서 설명한 오동나무나 잡목 또는 껍질을 벗긴 대나무 화살통에 나전으로 문양을 장식하는 전통을 말한다. 나전은 서해안에서 나는 빛이 곱고 좋은 것을 골라서 쓴다.

백골에 한지를 발라 야물게 한 후 옷칠을 4~5번하여 바탕칠을 한다. 나전을 붙이기 이전에 사포로 전체를 문질러 면을 고른 후에 문양이나 문자의 나전을 싯톱으로 깎아서 붙인다. 나전을 붙인 후에도 다시 두어 번 옷칠을 더한다. 나전칠 전통은 각종 산수화·사군자·십장생 등의 문양을 넣어 만든 고급 화살통이다.



사진 133-① 나전 재료

사진133-①. 나전 재료

나전은 서해안에서 나는 빛이 곱고 좋은 것을 골라서 쓴다.



사진134. 조개 문양 만들기

나전을 붙이기 이전에 사포로 전체를 문질러 면을 고른 후에 문양이나 문자의 본을 붙인 나전을 싯톱으로 끊어서 붙인다.



사진135. 백골에 바탕칠 하기 ①②③

백골에 한지를 발라 야물게 한 후 옷칠을 4~5번하여 바탕칠을 한다.



사진136-①②. 나전 문양 붙이기

나전을 풀로 붙이고 따뜻한 인두로 지진다. 나전을 붙인 후에도 다시 두어 번 옷칠을 더한 후 나전 문양의 덧칠을 곁어낸다.



사진137. 완성된 나전칠 전통

Ⅲ. 전통장 기능보유자 “김동학”

전통 제작은 김동학 외에도 마산·진주·광주·예천 등지에서 만들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그 중에서도 마산의 박씨 노인이 조각을 해서 만든 전통이 불만하였으나 지금은 없고, 또 경상북도 예천읍에서 이씨 노인이 지전통을 만들었으나 그것 역시 지금은 없어졌다. 예천의 지전통은 근래까지 기름에 절인 한지[장판종이]로 만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서 상품화하였으나 역시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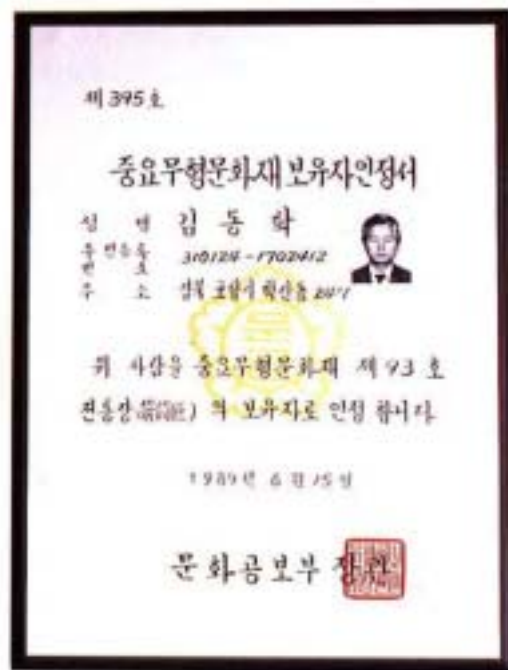


사진138. 전통장 보유자 인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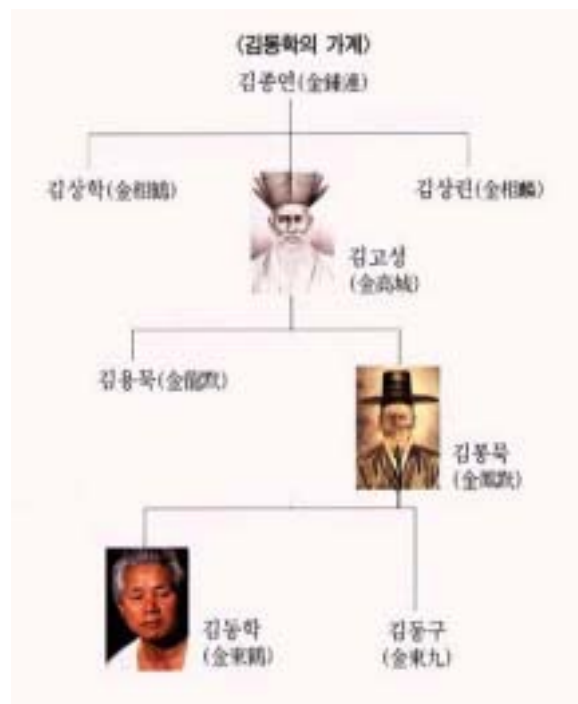
현재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조을석씨가 대나무에 조각하는 수법으로 용문양(龍紋樣) 등을 조각하여 만들고 있으나 수법이 거칠고 정치하지 못하며 조잡한 느낌이다. 그는 또 활을 쏠 때 필요한 각지를 만들기도 하며 광주와 전주 등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각종 활에 관한 재료를 사정(射亭)에 공급하고 있다.

또 순천에서 근래까지 윤재열(尹在烈)씨가 화살통을 만들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전통을 만들지 않았으나 도중에 화살통을 수리하다가 취미를 붙여 화살통을 만들었다. 근래에 의정부로 자리를 옮겨 전통을 제작했으나 그만두었고 최근에 사망했다. 이처럼 전통의 제작자가 줄어드는 것은 화살통이 일반 생활용품도 아니고 활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도 아니며 취미 삼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극히 소수가 사용하는 전통 공예품이어서 실수요자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통을 제작하는 사람이 전국을 통하여 김동학 한 사람 뿐이다.

1. 김동학의 세가와 전통가업

전통장 김동학은 경주 김씨로서 그의 증조부 김종연(金鍾連 : 1821~1864)은 조선 순조와 헌종 때 사람으로 통정대부를 지냈으며 자(字)를 준백(俊伯) 호(號)를 광희라고 하였다. 그는 영일군 신평면에 있는 근무정(勤武亭)에서 어려서부터 무술을 익혔는데 근무정은 영해(寧海) 즉 구영일군지이다. 이곳은 이 고장 무인들이 궁술을 익히던 훈련장으로 지금도 사정(射亭)이 남아 있다. 김종연은 이곳에서 오래도록 거주하며 스스로 전통을 제작하여 더러는 남에게 선사하기도 하고 동료들에게 화살과 화살통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동기가 김동학(金東鶴)씨의 전통 제작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김종연의 아들 김고성(金高城 : 1855~1908)은 자를 성시(聖時)라 하였고 호를 학은(鶴隱)이라 하였는데, 부친의 재질을 이어받아 경북 영일군 영해에 살면서 부친을 따라 무술을 익혔다. 경북 지방의 충의효열사(忠義孝烈士)를 집대성한 《대한충의효열록(大韓忠義孝烈錄)》을 살펴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말과 글을 동시에 배웠으며 병서를 즐겨 읽었고,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뛰어났으며 충효사상이 투철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고 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아들 용묵(龍默)·봉묵(鳳默)과 함께 삼남의진(三南義陳)에 참여하였다. 그는 군무집사(軍務執事)의 일을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수행했다. 흥해(興海)·자양(紫陽)·신영(新寧) 등의 격전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부자가 진중에서 사격 솜씨가 훌륭하여 대포[大包 : 父]·소포[小包 : 子]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1908년에 충북 단양을 지나다가 일본군을 만나 고군분투하다가 전사하였는데, 이때에도 유언으로 “나를 버리고 적과 싸워라. 적의 우익을 쳐야 승산이 있다.”라고 하였다.



<김동학의 가계>

우리 증조부님은 이제 그분이 통정대부[通政大夫 : 당상관 정3품]라는 그 벼슬을 했거든요. 그 인제 했는데 옛날에는 이 활을 지금 얘기하지만 귀족이 뽐 거래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아무나 봐도 괜 찰지만, 옛날에는 좀 넉넉한 집안에서 있는 사람이 하여튼, 쌍놈은 활도 못 쏘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제 증조부님이 무슨 직위다 보니까 그 인제 뭐냐하면은 통정대부라는 그지요. 그런 벼슬을 나는 그 확실히 통정대부라는 게 족보에 보면 나오는데 인제 하면서 활을 즐기고 그 글도 많이 아셨고 솜씨도 있고 이래가주고... 그런데 고향이 어디냐 하면 여기서 영일군 신평면이거든요. 지금도 신평면인데 고려 때에는 그쪽의 읍이라예, 고려 때는 포항이란 것은 그때 생기지도 않았고 흥해도 그랬고 거기 생기면서 흥해가 생겼고 그래서 거기 범흥사란 절 있잖아 거 신라 때 그래 거 넉넉한 생활을 하고 살고 자손들을 그렇게 길렀는데 삼형제가 한 거 같드라구요. 삼형제네. 고기에서 한대가 어디로 갔나면 중국을 갔어요 한대는 삼형제분인데.... 중국을 가 갔고 지금 어디가 사는지 모르지요.



사진139. 고향 신평의 옛 집

사진139. 고향 신평의 옛 집



사진140. 의병운동을 하셨던 할아버지 산소의 성묘

사진140. 의병운동을 하셨던 할아버지 산소의 성묘

한 갈래가 삼형제분에서 증조부님 삼형제분에서 한 갈래가 글로 떨어져 나가 버렸지 지금 모르지요. 왜정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정 치하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각 도처에서 의병을 조직을 하고 만세 삼창을 부르고 일본사람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우리 조부님은 글을 많이 하시니까 본래 이 근방에 의병활동 발상지가 어디나 하면 기계라예 기계. 기계 용제면입니다. 용제면이가 발상지거든. 그 조부님이 원래 그때는 용제면 거기서 나오요. 지금도 거 가서 호직 초본 등본을 떠면 1번으로 나와요. 조부님이 그후로 신광으로 왔는데, 그 조부님이 아주 체구도 크고 굉장히 엄하고 말하자면 정의 정의적이란 말이야. 집은 통 모르고 오로지 나라를 늘 구하겠다 해서, 대구에 정환직이라고 있거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임을 해가 말하자면 만세 부를 사람들을 영입을 했거라. 거기서 조부님이 사무관을 봤어요. 기록에 보면 사무관직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글을 그리 했다 그면은 글 한 사람이 얼마 안되거든 그때 보면은 대개가 모두 못살구 이러니까 사무관직을 하구 그랬는데 말타고 다니고 활쏘고, 그 집안 넉넉하던게 그만 조부님이 운동 하시던 바람에 아 그 좋은 살림을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어머니가 막 시집 오셨을 적에 낫쇠 젓가락이 안 있잖습니까 말(승(升)) 있지요 말 쌀 한 말 담는 그리고 하나드립니다 낫쇠 젓갈이. 그러니까 얼마나 넉넉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 살림으로 어디 심부름 하나 갔다 오면 '니 저 저 논 니 가져부러라.' 어디 심부름을 해야 되고 수고를 했으니까 또 어예면은 '저작 논 니 가져부러라' 이래부고. 이런 식으로 막 나뉘져 뿌리고 조부님의 흥량 분량 돈 쓰고 다니니까 살림이 남을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뜨냐면은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고 의병하는 분들은 동네에서 숨쳐주면은 주재소라 그러는 지금 말하면 파출소 왜정 경찰이 알면은 그 동네에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아주 멸망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의병들이 나중에는 적이 되버렸어요. 도적이 됐는 거래요. 왜 도적이 됐나 하면은 동네에 드가니 밤도 안되니까 불지르니까 이놈들이 밤에 몰래 내려와서 훔쳐먹고 약탈해 가고 도적이 된 거래요. 인제 거꾸로 되버린 기라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조부님이 여기서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충청도로 갔는게 래요. 말하자면 피신을 갔는기지. 도저히 못사니까. 거기 재산은 뭐 다 떨어먹었지, 뭐.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충청도에서... 단양에서 왜놈들하구 이거하다 거서 전사했는데 조부님이 거기서 묻혀버렸는기라. 그래 인제 그래되니까 할머니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성 이씨라 할머니가 안동 하회마을이 진외가래요 진외가 집안이다. 아버지도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불어있을 수 없으니까 충청도로 가버리셨는기라 아버지 따라서, 그래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기서 그리 계시다가 해방되고 내려왔잖아요. 고생 많이 했지요. 빈털털이로 나를 업고...아니, 여기서요 업고 갔었어요. 업고 갔다고 그러드라고요. 뭐. 그래가주고 해방이 되고 내려 왔잖아요 해방되고 그때가 내가 열여섯이던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 산에 송구하러 가서 소나무가 빨간 소나무가 송구가 많습니다. 우애가 빨간 거, 그때 묵으로 가는기야. 막 비가 넘어뜨려가 그거 빗저가 하나씩 해가 내려와가주고 그걸 물에 넣고 두들기만요 잘잘잘대요 그걸 열가가주고 그걸 죽을 쑤어 먹었다니까요. 송구죽 그게 송구죽이라요. 지금 보만 약먹은기라요, 그게. 조부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니 그 양반이 독립운동하면서 망하기 시작한거지.



사진141. 할아버지의 비석



사진142. 조상의 산소를 손질하는 김동학

사진142. 조상의 산소를 손질하는 김동학



사진143. 고향 신광 앞들에 선 김동학

김용묵(金龍默 : 1861~?)은 김동학의 부친이며 김고성의 장남이다. 자를 원학(原學)이라 하였다. 부친을 따라 의병의 진중을 다니며 화살과 전통을 만들어 주었으며, 의병의 역할을 하면서 군중의 화살통을 제작해 제공하였다. 일제시대가 되자 영일군 신광면에서 충북 단양으로 피난하여 살았다. 그래서 김동학 역시 어린 시절을 충북 단양에서 보냈다. 김동학은 단양에서 출생해 살다가 해방 후 포항으로 이사하였다. 김동학의 화살통을 만드는 가업(家業)은 일제시대 중에도 생업이 되었으며, 김동학은 어려서부터 솜씨를 배워 지금까지 화살통을 제작하고 있다.

그래가 내려와가주고 고향이라 내려오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왜정 때에, 그래가주고 신광에도 없고 그러니까, 큰집이 있었는데 큰집도 그때 농사도 조금 지니까 오히려 경계를 하니까 아버지가 마 '에이 형제도 필요없다꼬' 포항시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기술 배우게 뭐 있어 뭐쥬 손재주 밖에 없거든 인제 그래 목수도 하고 활통도 만들고 그래 활통도 많이 만들면 예천 지방으로 그놈 갖다가 주고, 우리 아버지도 선친도 보면 그 뭐라 그러나 아주 한량이라. 판수를 잘 붙였어요. 또 판수를 판수를 넣가지고 활통을 여갓고 가면은 안와요 고마 안와. 기생에 폭 빠져가주고 그거를 불만 술이 많이 주고 해가주고 잘 붙어요. 그 판수를 판수를 구성지게 부러요, 판수를. 그러니까 맨날 집안꼴이 말이 아니지. 그래가 내가 이거 말이 안되겠드만 농공장을 땡겼그덩 농공장을 땡기다가 6.25가 나쁘렐어 인제. 스물 전이지요. 그때가 해방되던 때가 열다섯이니까. 그래가 6.25가 안났는꼬? 6.25 났는데 피난을 어디로 갔느냐면 신광으로 갔지.

고향으로 와가주고 산밑에서 6.25를 보냈지요. 형님 한 분이 있었어요. 형님 한 분 포항 헌병대에 있었거든요. 7연대. 포항전투가 아주 심했잖아요. 거기서 전사했다구요.



사진144. 고향에 오면 어려웠던 시절이 회상된다.

2. 김동학의 전통 기교 형성의 배경

포항은 신라 시대부터 경주를 끼고 있는 해변 지역으로 왜적의 습격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곳이며 군사적인 요새지로 영일군지 즉 흥해가 중심도시였다. 더구나 조선시대에는 육군과 수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훈련도감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영일군 무기고에는 활이 143장·궁가 43조·궁현 144조·장전 309시 등 소장되어 있었고, 흥해에 주둔한 상비군과 함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인해 무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흥해는 무인 도시로서 주변에는 근무정이 있어 김동학의 조부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 제작에 손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부의 전통 제작은 직업적인 전문 제작은 아니고 무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활통을 취미로 직접 제작한데서부터 발달하여 후대까지 이어져서 현재는 김동학이 이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다.

본래 김동학은 부친 밑에서 일하는 것을 눈으로 익혔다. 그러나 부친은 김동학으로 하여금 절대로 화살통이나 화살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지나고 그 무렵 김동학은 뚜렷한 직업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아버지의 일을 틈틈이 배워서 화살통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김동학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남달리 특출하여 아버지가 만드는 일을 거들어 주었다. 그때 대나무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화살통의 고리를 조각하는 기법 등을 틈틈이 익혔다. 부친은 철저하게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으나 몰래 한두 개씩 만들어 주변의 사정터에 가지고 가서 팔기 시작하였다.

김동학이 본격적으로 화살통을 제작하기 시작한 때는 1958년경 부산에서 고향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돌아온 직후인 1960년경이었다.



사진145.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김동학



사진146.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김동학

해방되기 전에도 내려와가주구 심지어 흥년들었잖아요, 해방되기 전에. 흥년이 들어가주구 산에 가
가주구 송구 말이지 선친 따라가 송구 빼쳐다가 송구죽도 쌀로 쌀로 그거 나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송구 그거 뚜드려가주구 폭 울켜가주구 죽을 쑤어 놓으면 맛있어요, 그제. 그거 다 먹었지요. 온갖거
다 먹었다 그제. 고생 많이 했어요. 그제 인제 6.25나고 군복무하고 뭐 할게 있어요? 사과장사도 해
보고 엿장사도 해보고 뭐든지 파는 거는 다 해봤어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제 됩니까 그제.
그제 나는 거 어디로 갔냐 하면은 부산을 갔는기라 부산을. 야간 학교를 다니다가 포항서 포항서 야
간부 동네 중학교를 땡기다가 거기 땡기다가 내 또 마 내 아는 친구가 부산 그제만 해도 나도 돌아
땡기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제가주구 마 '에이 여기 도저히 이러구 못벌만 간다' 고 2년간을 연락을
안해버렸네 그제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겠노. 그제가 부산에 가가주구 야간부 한탄 고등학교
라구 2부 다니는 고등학교에 송도에다 학교를 설립해가 있다구. 거긴 돈만 주면 들어가는기라. 그제
만 해도 아는 놈이 '야간부라도 땡기라구' 그래서 거기서 야간부를 땡겼어요. 거기서 고학했어요.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요. 꼭 공부는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제가주구 야간부를, 별거 다 팔았
어요. 성냥장사도 땡 장사도. 그 친구들 하구. 그제만 해도 고학하는 게 고학 그제 있었어요. 완장
찌고 다니면서 장사를 그제 하다가 거기서 포항을 왔어요.

집에 오니까 얼마나 그거 합니까. 죽은지 알았어. 그제 와가주구 할게 뭐 있니쨌. 우리 어머니가
돼지를 기르고 그리드라고요. 돼지 기르다가 활통 만드는거 아버지가 하던 거 내가 늘 심부름하고 늘
했그당. 이웃에 마침 친구 우리 친구 어른이 활 사두라. 마침 그 그거라두 한 번 해보자구. 활통을
만들려고 하니깐 아버지가 못하게 해서 이거를. 그랬는데, 못하게 하지. 왜 못하게 그제도 아버지는
목수 온갖 안한 게 없어요. 좌우시간에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못하잖아요. 그제가 그거
한다니까 그거 하면 빌어먹는다고 말이지 하게 해야지. 낮에는 농 뒤에다가도 숨겨 놔 놓고 밤으로
짹짹으로. 못하게 하지 배웠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깐 그걸, 다른 걸 하라 그말이지 이제. '그걸 하
면 어엘라냐?' 이거지. 빌어먹는다 이거라 이제. 그거 하면 빌어먹는다 이거지. 그럼 내가 뭐 기술
있나요? 나는 그거 또 취미가 있어요, 그제. 만들고 그림 그리는 게. 모르게 모르게 했지 뭐. 모르게
모르게 해가주구 활쏘면 영감 거기에 있으니까. 아버지도 내[계속] 칼 갖다 숨카뿌고, 이 자숙아 그
굴어죽는다고... 내가 몇 번 감춰는지 알아요. 못하게?(부인이 하는 말) "아! 동학이 너 참 재주있
다." 재주있다 그러는데 이게 또 금방 팔리네. 그 영감도 못하는게 없어요 그 영감도 그 영감이 농
방도 하고 그랬그당 거 나 일하고 그랬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영감이 글도 잘쓰고 칼로 따듬는 것도
잘하고, "아-하! 이놈 참 재주있다." 그제 날 격려해주거래 그제. 그거 버리지 말고 하라고. 인제
이게 또 주문이 막 들어오네 또. 자고 싶어도 이거 참고 해야 되는 기라요. 그러다가 어른이 돌아가
셨지 선친이...

재산이나 내가 결혼할 때 요 술갈 두 개도 못 가져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직접 내가 지었어요. 친
구들 데려와가주구. 처음에 뭐 생각했나면 내 이런 걸 할려면 내 셋방 생활은 못한다. 이 뭐 꼴짜기
도 되고 산꼭대기도 좋다. 일단은 내 집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제갖고 뭐 그그 꼴짜기로 들어갔는
데, 우리 집 사람 처음 들어갈라니까 무섭어갖고 내 시내 나갔다 안들어오면 무섭어갖고요 잠도 못잤
어요. 전기도 안들어오니까 인제 촛불에 호통불 켜나놓고 있을 땐데 그기 김종래씨 그걸 알잖아요.
그제가 이기 집을 지었는데 방 두 개 전기 두개라예. 방 두 개 전기 두 개데 처마있고 뒤편 없고 아
무것도 없는 담도 없고 신발 비 오만 방안에 들라놔야돼요 좌우간에 비 오면 신발 방 안에 들라놔야
되고 저녁에 무서워 나가도 몬하고 울라리도 아무것도 없고 처마만 있는거야 집만 딱하이 스투트 해
가주구 거기서 시작했어요 내가. 그 뒤에다가 소목공장 채리고, 그러다 한 번 불 나 버렸네 도 인제.
홀라당 다 태웠지요 또. 나무 다 태워뿌고 잘단나 버렸지요 뭐. 거 참 나는 그 고생이 있었고. 어머
님이 애길 할 때 "동학이 니는 사주에 보면은 불 복판에 내가 서가 있네, 너는 불을 조심하고 다녀
라." 그래서 내가 본 거예요 그제. 사주가요 참 잘맞은 사주라. 그사주를 보면 "김동학이는 바람
짙어지고 내[계속] 사군자 그려", 사군자나 그리고 뭐 만드는 거야 이게 비록 바람 짙어지고 다닌다
고 사주에 그제 있다니까요 글썽. 사주에 타고났어요 내가



사진147. 국내 유일의 전통장 김동학



사진148. 작품에 용조각을 즐겨 새긴다.

전국에 활쏘는 운동이 일어나 화살통이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나 아버지가 고령으로 일을 못하자 가업인 화살통을 만들어 아버지의 소개로 경상북도 예천읍에 있는 권영록(權寧錄) 영감님에게 찾아갔다. 당시 권영록씨는 경상도 내륙지방의 활과 화살을 사정(射亭)마다 대주고 있어 화살통 역시 잘 소개해 주어서 전통 만드는 일이 바빠 생업에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 인제 옛날에 권영해영감이 “자네 말이지. 우리 그거 한 번 해보자.” 이라는 기라. “그럼 그라입니다.” 내이께네[출품하니까] 장려상인가 받아가주고 그때 돈으로 내가 잊어버렸는데 4만원인가 6만원인가 주드라고 돈을 장려상을 인제 6만원인지 얼마지 고상현씨가 봉투에 넣어가주고 장려상이라 주에 그제. 그래가 거기에 용기를 약간 얻고 그래가 예천 권영해영감이 “ 잘 만들어야. 만들면 내가 다 팔아준다구.” 그래서 그 쪽 그제 언제까지 잘 됐냐면 70년도 하반기까지 중순까지는 그제 괜찮았어요. 전통이 잘 나갔어요. 그때는. 그때는 밤일이라 저거 만드느라고 내[줄곧]밤일하고 이래가 그때 당시 저 큰 거를 얼마를 받았느냐면은 그때 돈으로 25만원, 30만원 받았어요. 그기 72년도 73년도 했는데 많이 받은 거예요 그제. 몇 개 값이지! 그래가주구 받고 그랬는데, 그제 힘은 들지만 그지요. 그래 그제 차츰차츰 이게 안되는기라 인제. ‘야 이러다 굶어 죽겠는데’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포항에서 있을 때 우리 바로 사정이 있거든요. 우에 바로 사정(射亭)인데, 화살통을 주문했는기라. 그걸 몇 날 몇 일로 인제 그걸 만들어 가주고 쌀 사먹을 기라고 인제 해가주구 올라가 이게 인제 이 사람이 안나왔네 또. 이 사람을 만나야 돈을 받는데 그래 쌀을 사는 판인데 빈 걸로 내려왔지 두 시간 있다 내려오니 지금 우리 야 말고 큰아[말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있을 때구마 요런 것들이 막 요렇게거덩 배고프다 소리를 배아프다 그러는기라. 야들 배고프다 소리를 할 줄 모르고 배아프다고 구부는 기라. 배고파 죽겠는기라 그기 배아프다고 둘이, 우리 집사람 내가 통값 받아가 내려오면 좇아 쌀 사다가 먹으면 되는데 통값 못받았네, 아[아이]는 배아프다고 내 물어왔는데, 그때 상당히 시련이 많았지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 안되겠다마 인제 “좀 있어라” 이래가주구 활쏘는때 통하는 영감이 있었그당 거 가가주구 “돈좀 빌려주소. 활통값도 못받았구마. 돈좀 빌려주소.” 그래가주구 그제 돈으로 몇만원을 빌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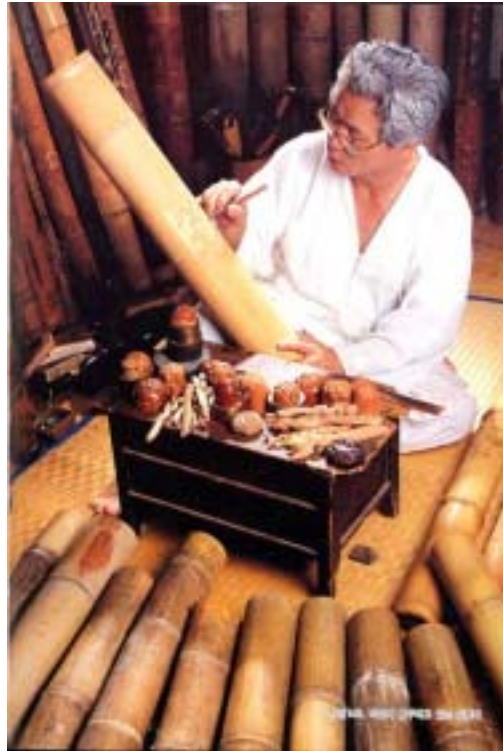


사진149. 김동학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박대통령, 레이건대통령, 후쿠다수상 등 여러 명사들에게 자신의 전통을 만들어 준 것이다.

빌려가 우선 쌀을 사서 밥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땅콩 사다가 아들[아이들]이 배아프다 그랬으니까 그래가 그 사가주고 쌀 사가주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가 말도 못하게 어려웠구요 그때가. 안나가니까. 그래 가만 생각해보이 '야 이거 자주구는 굶어 죽기 십상이고 도저히 후반에 안되는 거구나. 그때만해도 70년대 초반 60년대는 밥만 먹으면 되는기라. 그때는 돈벌 생각은 뒷전이라. 그때는 밥만 먹으면 다행이라. 그때는 돈벌 생각은 못하고 인제. 그래가 아들[아이들] 자꾸 놓지요 우에니까 인제 아들은[아이들은] 자꾸 커가지 이래가 굉장히 가정도 어렵고 해서 했는데. <예전에는 전통을 팔러> 다녔지요. 아니 지금 뭐 강원도 지금 뭐 나가면 커벅 넘어가지요. 비싸서 못사서 그렇지. 근데요 한량들하고 놀만요 그기 진짜 참 우리가 그게 이렇게 냉정하게 탁 짜르는 걸 못하그덩요 보만 그걸 못해예. 그냥 막 탁탁 이래 해뿌러야 되는데 또 그것도 인제 뭐 맨드러가 판다고 인제 그것도 인제 점수 얻을라고 인제. 즈그들이 소주를 즈그들 먼저 안삼니까 술을. 그러니까 술이 사르르 오르만나도 한잔 산다 말이야 인제. 즈그들 한 병을 여럿이 나 한잔 산재 나는 여러 사람 상대 아넵니까 그지요. 그라만 마 이래 묵고 뭐 이러면 화살통 또 주문하고 인제 주문하만 또 선금 좀 받거든 그거 또 다떨어먹는기지 거기서 인제 선금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놈도 오고 저놈도 오고 마 정동이 돈 잘버는가 싶어가 인제 막 와가 먹는기지요 뭐.



사진150-①②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 본 목재 전통과 화각 전통

사진150-①②.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 본 목재 전통과 화각 전통

1970년부터 김씨는 돌면서 화살통을 주문받아 작업을 하였으나 화살통이 워낙 섬세한 세공이고 사치스러운 조각과 장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로 수지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화살통은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어 화살통 만드는 일은 점점 쇠퇴하여 갔다. 그러나 김동학은 그 직업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여 현재는 국내에서 유일한 전통장이 되었다.

그기 취미가 있다니까요, 그기. 하는 게 그게. 그림했으면 난 진짜... 글 쓰고 있지요 글을 쓰고 난 그리[그렇게]했으면 나는...그림도 잘 그리고... 농방에 땀졌어요. 그런데 다 때려차뿌고 인제 활통 만드는데, 근데 인제 뭐해서 그러냐면은 돈이 조금만 가지만 그만 대나무만 사면 되는기라고 그제. 대나무 두어 개만 비가[베어서] 오면은 거 몇 개 만들거든요. 우선 원가가 안드가잖아요, 인제. 그 이유는 거기에 많은 작용을 하는 기라고. 밀천이 없으니까. 밀천이 안 들어가구 별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인제. 그래가주고 그걸 한 번 잡고 커졌지 인제 커지니까 인제 세 개 저기 세 개 자꾸 이야기 하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가. 지금은 도구나 좋았지 그때만 해도 연장 몇 개 없었어요. 이[조각칼의 날] 다 붙어 터져버리고 그래가주고 쪽 연명해가다가 아 언젠는 72년도인가 인간문화재 공예전을 했구마 인제. 경복궁에선가 덕수궁에선가 제1회를 1회를 경복궁에선가 했어요.

그게 배운게 어디서 자꾸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제 사실은요 붓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제 머리속에서 꼭 들어와 있어야지 그제 되지 그제 안돼요 그제. 우선 대나무 파가주구 따 내가 주구 금긋고 아주 골치 아파요.

농방 땀기고, 내가 특기가 뭐냐 하면은 농방 땀길 때 힘든거 톱질같은 거 이런거는 잘 모해 구멍 앞아서 구멍 파는 거 그때는 지금은 기계로 그때는 손으로 하거든요. 그제 내 알아줬잖아요 그거는

고만. 암만 어려운데도 나는 잘 못하면 쪼개쳐뿌거든 이게 그것만 파는 데는 마 이기 머리가 그지요! 내가 구멍파는 도사래요, 꿀질. 예. 그리고 월급을 그때는 나는 특별히 더 받았단니까요. 일을 잘해서 그게 기초지 내가 다른 거는, 일은 천천히 이런 상 개다리소반 다 짜요 또, 우리 선친이 연장 다 있었어요. 온갖 소반 다짜요, 소반을 옷칠하는 거 옷 나오면 꺾디기 다 뺏쳐다 바로 다 문디[문질러] 칠하고 도로 그 칠해해주구. 진짜 그 어른이. 이거는 뭐 이거 해보이 이거 와보면 내 그걸 안다니까 글썽. 칠도 어느정도 흥내낼 줄 알아야제. 예! 나무 다룰 줄 알아야제, 연장 만질 줄 알아야제, 잠시 뭐 튼드리는 거 해야죠, 글도 좀 써야제, 무식하면 이거 못만든단니까 이것을. 그림도 좀 그려야제. 이게 자꾸 그린다고 되능교 또, 머리가 팍 돌아가야지. 본[本이나 型]이 없어요 나는 본이 없고 그 굽기따라 이래 봐서 여기 학 넣고 한 마리 어디 넣고 소나무 어떡 넣고 방울 어다 넣어야 되겠다 구름 위에, 이거 딱 나오는 거지 그제. 그제 하튼 일이라는 게 일이 사람 죽이는 기그덩. 쇠도 다루어야 되고 뭐 있지만은 글도 좀 써둬야 되고 이게 팔방미인이 되야 된단니까. 내가 글을 그래 뭐 그 정도라도 못쓰면 우엘친교? 어데가서 빌려쓸겁니까 고거, 나는 뜻을 내손으로 일단 남의 손은 안 빌리고 내손으로 다 거기다가 인제 그걸 주는 기지요.

<그럼 전통이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70년대요. 65년도 지나가주고 70년대 초, 그레가주고 70년대 후반까지 좋았어. 그때는 그때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이것을 가보라고 살았단니까요. 가보한다고요 집에서. 그때 당시는 가보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저 서울서 전시 안함니까? 부산서도 올라오고 이랬어요. 지금 저 천일고속, 잇어부도 안해. 천일고속 사모님 많이 사갔어요.

<백골로> 오동이 좋아요. 오동 이게 가장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습기를 방지하고 인제 여러가지로...

<대나무는 성질이 강해> 그 저기 강하니까 잘 터지잖아요. 터지는 게 제일로... 그러니까 그제 삶고 기름 빼는 게 아닙니까? 그제 기름을 빼지고 인제 삶는건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원칙을 이기 대나무를 10년 이상 길러야 된단 이렇그덩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10년 이상 된 대가 없습디. 대가-, 10년 이상 길러야 돼요. 그러면 언제 대가 좋았냐면을 해뜨기가 나요. 그 해뜨기는 기름이 없거든요. 그런 게 안타저요. 그렇요. 잘해봐도 여하튼 터지면은 일단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지요. 어디 별 일 있는교. 큰방안에서 다하고 대나무를 자르고 뭐 큰거 만질때는 밖에서 대충 만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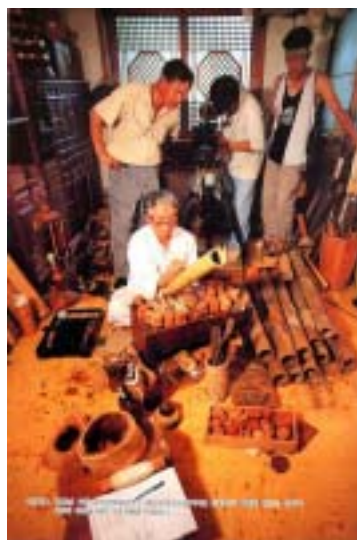


사진151. 1996년 여름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에서는 김동화의 화살통 만드는 솜씨와 살아온 평생에 대한 기록영화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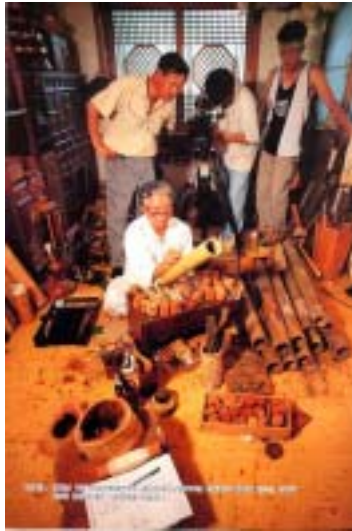


사진152. 삼대가 지나야 빛을 본다고 했던가 지금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이조목공예 공장과 살림집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박대통령한테 해준 거. 하 그게 몇 년돈지 모르겠네 그게. 박대통령이 시해당할 적에 몇 년돕니까? 그때가 79년돕니까! 79년돕니다. 79년도, 79년돈때 그 작품을 해보니까 말이죠. 참 그 레이건 대통령 여 왔을 적에 또 국회에서 그때 최문식 의장 있을 때 또 후쿠다 수상 여러 또 그외에도 선물용을 제가 많이 했는데 청와대 작품이 제일 어려워요. 청와대는 왜 어려우냐면은 이거는 그냥 주문해놓고 가져오시오가 아니고 사이사이에 와가주고 이것을 체크해가 사진찍고 해가 또 올라가가주고 보고해가주고 또 뭐 우에면 좋겠다 이거야. 그때만해도 요새는 그래 안넣지만은 그때는 반드시 대통령 작품에는 휘장도를 들어갔어요. 원앙 휘장도가 들어갔어요. 봉황이 들어갔는데, 이 김대통령은 그걸 안넣었다고 김대통령은 안넣고 그 그 넣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하마 조심성이 되는거라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해주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참 잘만들었다.”, 우선 보기가 좋으니까 인제 우선 뭐 보기가 좋으니까 그지요? 이게 뭐 같은기라 이게 톱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제일로 내가 소신도 있게 했고 보람 있었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장관상을 받고 뭐 장려상을 받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기사 했지만은 그거 보다는 그러 쪽이 더 이제 거기에서 만든 힘을 얻고 그지요?



사진153. 이조목공예 공장 간판



사진 154. 단란한 가족

사진154. 단란한 가족

능방 안했으면 난 걸뱅이 생활해야 되요, 걸뱅이. 그 전통도 못해요. 노가다 땀쳐야지 뭐.

한 번은 오징어 잡으러 갔어요. 내가. 오징어 잡으면 돈번다 이태가주고. 오징어를 인제 방에, 오징어를 잡으러 갔는데 내가 한 달만에 왔다구요. 한 달만에. 한 달만에 오징어 두 축 말라가지고 왔다니까 한 달만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인제 아까 그 막내 그 배에 들어갔구는[임신] 이놈은 조금만 돈 가져오기를 내, 야 그 이듬해에 오징어가 안잡혀요.

또 내가 또 하나 더 하께, 고생울. 야 인제 활통 이런 것도 안되고 서독 광부가면 돈 번다 커드라.

이래 됐는기라. 서독 광부... 그때 초반이래. 60년대 인제 60년대인데 간호사 나가고 할 때니까. 그래가 이웃에 친구하고 셋이서 갔어. 거갈라면 강원도 가가주고 광산에 가가주고 기술연마해야 된다 이기라. 내가 뭐 등치나 있나 뭘뭘 꼬맨한 사람이 뭐 간만 커가주구 갔다. 강원도로. 강원도로 광산에 안갔나 들어갔다 저을인데 저을인데 광산에 들어가가주고 기술을 배워야지 뭐 되니까. 그때는 그걸 시켜주드라고요. 취직을. 한 놈은 바로 나가베고 나하고 두 놈이 버렸는데 제일로 광산에 할 일이 될 못하냐면 밤에 3교대를 하는데 밤에 나가 12시에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다 나가야 되그덩. 그러면 아침 4시에 나와야 돼. 야 눈이 이래 쌓였네요 그지요 막 바람 쌩쌩쌩 불면 옷을 갈아 입고 나갈라카만 죽는 거 같애.

‘삼대가 지나야 빛을 본다’ 이러드라구

한국 전통공예 미술은 공장(工匠)들의 기교에 의하여 창작되며, 어떤 의장이나 철학적인 작가의 창작 의식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동양의 공예 미술이 대부분 국가로부터 천기적(賤技的) 멸시를 받았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그래서 한국의 공장들은 그 숙달된 기술이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대(代)에서 생활의 방편으로 삼고 경영하였다.

한국의 공예 예술은 대부분 가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사용하는 공구나 제작 산출된 작품이 매우 소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천적인 재질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도움 없이 경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은 매우 인간적인 정취가 풍기고 아기자기한 수수함이 풍긴다. 그래서 한국의 공예는 순박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선려한 개성미가 뚜렷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해방 후 한국의 공예 미술품은 기계화에 의하여 다량 생산이 필요했으며 공업화하기 시작하여 예로부터 전해 오는 한국 특유의 전승 공예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까지 개인의 의지와 가난을 극복하면서 가업을 천직으로 삼고 순수한 수공업품인 화살통 제작을 고수해 온 김동학은 이런 의미에서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현대 과학의 발달에도 아랑곳없이 순수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화살통을 제작하고 있는 것은 현대 공예 미술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필자는 투철한 한국적 창작 정신과 높은 기교, 그리고 오랜 숙련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을 제작하고 있는 김동학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전통장 기능 보유자 김동학의 약력

■성명 : 김동학(金東鶴)

■본적 : 경상북도 포항시 덕수동 920번지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학산동 247번지

■생년월일: 1931년 1월 24일생

●약력●

- 1950년 1월 13일 부산시 강남 고등학교 야간부 2년 중퇴
- 1973년 10월 30일 제 1회 인간문화재 공예 작품 전시 장려상
- 1974년 11월 4일 사단법인 전통 공예 기능 보존 협회 가입
- 1974년 10월 중앙 민속박물관 전시
- 1975년 8월 전국 민예품전 특선 입상
- 1976년 8월 14일 경북 민예작품전 경상북도 도지사상
- 1976년 9월 24일 전국 민예작품전 입상
- 1976년 10월 10일 제2회 인간문화재 공예 작품 전시 장려상
- 1978년 8월 18일 경북 민예품 작품 전시 경상북도지사상 특선
- 1978년 9월 20일 전국 민예작품전시 입선
- 1978년 8월 11일 경북 민예작품전 경상북도 도지사상
- 1979년 10월 23일 제4회 전승공예전 입선
- 1981년 제6회 전승공예전 특별상
- 1982년 제7회 전승공예전 장려상
- 1983년 제8회 전승공예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 1985년 한국미협 경상북도 공예 분과 위원장 역임
- 1987년 제12회 전승공예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 1989년 6월 1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통장 보유자로 지정